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부활은 그 어떤 기적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기적의 표지만을 따라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감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로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알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5장 1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4호 2012년 10월 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기적은 “하나님나라 오고 있다”는 표지

CT, 지구촌 오순절교회성장에 따른 기적범람 성경적 의미 재조명

교회성장학자들은 2020년이 되면 오순절교회 신자들은 1억 명이 넘을 것이라는 가정한다. 그만큼 오순절 교회는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성장의 탄탄대를 걷고 있다. 성급한 사람들은 벌써부터 신학의 축이 1세계 즉 서구에서 3세계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오순절교회는 교회성장을 바탕으로 지구촌 교회 운동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교회에서 성령론이 발전하고 성령론의 중요성을 교회들이 인식한 것은 상당부분 오순절 운동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오순절 운동이 전통적 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재발견하도록 도와준 것이다. 따라서 교회성장에는 반드시 기적들이 동반되고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병이 나고, 불치 환자도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해서 교회 성장을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기적과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과 기사는 불합리한 종속함수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지탱되지 않을 때 오히려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의 팀 스태포드(T. Stafford)는 따라서, 성경에 근거해 “기적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과 표지(Sign)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기적에만 열광하지 말고, 바로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표지라고 해석하고 있다(A New Age of Miracles: Around the world, wherever churches are growing, reports of the miraculous are rampant. What do they mean?).



기적은 교회성장에 큰 기여를 해온게 사실이지만 말씀으로 지탱되지 않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가 패서디나를 인도하리라는 논리적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표지판은 그저 안내에 불과하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야 비로소 그 표지가 진실을 말하는 지 아닌지 알게 된다.”

브라운은 이렇게도 썼다. “기적은 경교등과 같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세계 한가운데 존재하는 또 다른 질서의 존재를 암시한다.”

결국 표지는 그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기도 어떤 것의 증거가 (2면으로 계속)

종교개혁시대부터 내려오는 개신교 내부의 한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면 충분히 위대한 기적 아닐까?”라는 질문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기적이 필요한 까닭이 있을까?”

따라서 이 전통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오순절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기적의 소식이 무성하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적을 너무나 중요하게 본다.

정확히 ‘기적’(miracle)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표지’(sign)이다. 이 단어 안에 성경의 세계관 전체가 가득 들어차 있다. 현대의 미국인들은 기적을 “증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며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분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자연 세계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증거 말이다. 그러나 ‘표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다.

풀러신학교의 신학교수인 콜린 브라운(C. Brown)은 표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패서디나: 다

음 번 11번 출구’라 쓰인 초록색 표지판을 볼 때, 나는 다음 번 11번 출구 차선 일체

않는다. 표지는 그 자체로 어떤 것의 증거가 아니다.

‘복음과 성령’으로만 제2성장 이룰 수 있다!

AP, 남미 도시화 문제점 제기과 경고 보도

2050년 남아메리카 인구의 90% 정도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라고 유엔이 발표했다. 지난 2012년 8월 발표된 유엔의 인류 정착 프로그램(Human Settlements Program) 보고서는 남미는 이미 가장 도시화가 진행된 대륙으로 현재 남미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미 국가들은 도시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안정된 경제와 안전한 인구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남미의 도시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오면서 종종 환경오염과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고 기록했다.

유엔 산하단체인 ‘인류 정착 및 주거(human settlements of UN-Habitat)’의 남미와 카리브해 지부 사무소 책임자 비트립(Erik Vittrup)은 남미 국가들은 현존하는 도시간의 큰 불균형을 감소시키며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세계에는 이러한 과제를 잘 해결한 도시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미의 도시들이 포용적인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도시에서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 현재의 남미의 도시화와 경제

건설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트립은 말했다.

한 사례로 멕시코에서는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택들이 건설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표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멕시코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이 5백만 채나 있다.

비트립은 남미 도시화의 다른 문제점으로 도시의 확장을 꼽았다. 남미 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완만해졌지만 도시의 면적은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도시빈민 증가로 환경오염, 정부통제 난항 남미, 천주교인 77%...오순절 교회에 도전

는 긍정적이다. 남미 도시 인구 성장은 연 2% 이하로 감소됐고, 경제는 수십 년 동안의 높은 부채와 인플레이션 기간을 끝내고 안정돼 있으며, 정부는 기반 시설과 주택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비트립은 일부 예외적 지역은 있지만 남미 대륙은 폭발적인 인구 성장의 시대를 끝내고 빈곤과 실업률이 감소하는 시대를 맞이했고, 남미의 도시들도 빈민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렇게 남미 도시들에서 빈민 슬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도시 빈민 거주민들의 수는 증가해 1억1천1백만에 이르렀으며, 도시의 빈민들은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돼 있고, 생활 편의시설과 일자리 그리고 교통이 제한된 채 살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남미의 국가들은 기존의 주택을 개선하기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도시의 확장을 환경오염시키고 정부의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도시가 확장되면서 남미 국가들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위축될 정도로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개정판 Operation World(세계지도정보)는 카리브해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남미 대륙의 인구가 5억 4,633만 명이며,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92.1%로 5억3,377만 명에 이르는데, 남미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천주교인(4억2,261만 명, 남미 전체 인구의 77.3%)이라고 기록했다.

따라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오순절 교회운동으로 급속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공동체들에게 남미의 도시화로 인한 병리 현상은 도전으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남미인들의 필요와 요구를 복음과 성령으로 해결해 줄 때 제 2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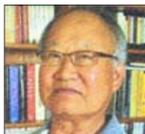
2면

나이지리아, 대중 설교자들 부상 물질적 풍요·정치적 세력 축적



7면

투고 칼럼 이용남 목사(혜세드글로벌 미션처지)



14면

여리고로 가는 길(6) 정종해 박사



16면

변화된 크리스천,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목회자 설교 세미나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을 위한 설교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하고 영성깊은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물별 강해설교의 준비와 전달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설교, 역동적 복음의 선포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한규삼 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예배소서 강해설교 연습

일시 10월 30일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Jenny), email: jennylee@apu.edu
- 10월 23일까지 http://koreanpastors.eventbrite.com 로 등록해주세요.



AZUSA PACIFIC UNIVERSITY



시론

김퍼(Gimper)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언젠가 찰스 스윈들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김퍼(Gimper)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김퍼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김퍼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김퍼라는 말이 출처를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김퍼는 보통 이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김퍼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친구 목사 중에 중국 북경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행객이 찾아와 안내를 부탁했답니다. 시간이 도무지 없는 목사님이 교회의 청년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청년이 그 여행객을 하루종일 북경 시내 투어에 하게하고는 돌아와서 불평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 나고. 이야기의 요지는 손님이 차비도, 식비도, 입장비도 다 자기에게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별반 고마운 말도 없이 당연히 받을 서비스를 받았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고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으로서는 씩씩거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목사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까. 뭘 것을 가지고 그래. 나는 그런 여행 가이드를 이천 번도 넘게 했어.”

저는 그 친구의 말이 사실임을 압니다. 중국에서도 살았고 현재도 미국에 사니 종종 그런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에 있을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소개받았다고 와서는 여행 가이드를 부탁할 때의 난감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친구의 넉넉함입니다. 이천 번을 넘게 남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잘 대접해서 보내주는 그의 여유와 푸근함이 상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몇 년 전 그 곳을 들렀을 때 그 친구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확실한 김퍼입니다.

오래 전 뉴욕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운동경기가 취소될 것으로 생각한 어떤 교인이 담임목사에게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목사는 “우리교회는 비가와도 할 것은 합니다.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강행의사를 밝히셨는데 놀랐게도 당시 전 명의 교인 중에 9백 명이 그 날 운동회장에 나타나 비를 맞으면서도 운동회를 잘 마쳤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옹고 그를 떠나서 그 교회가 보여준 포스가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면서 할 것은 한다고 믿어붙이는 목사의 폭심도 놀랍고 당연히 운동회 할 줄을 알고 몰려든 교인들의 순종 또한 놀랐습니다. 그 목사도, 교인들도 김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교회에서는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회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선교회의 대표선교사는 10년 전에 남편 선교사를 의문의 교통사로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죽인 것입니다. 미망인이 된 부인을 관계 당국은 불러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문제화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미망인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먹지 않는 자라탕과 보신탕을 가져오게 하여 먹고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선교회는 놀랍게 성장하여 엄청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국에서는 선교회가 사라지거나 선교사역의 예봉이 꺾일 줄 알았겠지요. 그 미망인 선교사님은 분명 김퍼입니다.

선교회 이사회가 열린 그 주말에는 자녀교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사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1년 전에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고 자녀교육 세미나는 주일학교 사역이 우리교회의 현재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와 시간을 맞추느라 불가피하게 한 주에 몰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인들은 한 주간 내내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봉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여유있는 지위를 해주지 않으면서 봉사와 참여를 기대하니 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남녀선교회 임원들은 일단 시작된 일이니 감당하자하며 끝내 미소를 잃지 않고 섬겨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외치는 말,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김퍼이십니다!”

나이지리아 대중 설교자들 부상 물질적 풍요 · 정치적 세력 축적

이코노미스트, ‘미국 텔레에반젤리스트 범한 오류 답습’ 경계 보도

목회자들에게 ‘성공’은 순식간에 사탄의 유혹을 앞당기는 촉매로 다가 설 수 있다. 보통 텐트에서 목회를 시작해 몇 천 명 아니 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키고, 여기에 라디오나 TV 방송목회로 수많은 사람을 매료시켜가게 되면 어느 기업인 부럽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의 장막에 갇혀 돈과 성공이 가져다주는 안락과 평안에 머물게 된다. 이미 소위 ‘텔레에반젤리스트’라고 불리는

미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칭송을 받는 목회자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반인으로 넘어졌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아프리카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이지리아 기독교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Celebrity priests: Not everyone is pleased about Africa's new breed of clergyman).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대중 설교자 테미토프(Temitope Joshua)는 몇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지자 여호수아(Prophet T. B. Joshua)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테미토프 목사는 나이지리아의 최대 도시 라고스(Lagos)에 있는 열방공회교회(Synagogue Church of All Nations)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매 주일 예배 참석인도 수는 1만5천 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독교 방송 ‘임마누엘 텔레비전’(Emmanuel TV)을 시청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 보여준 겸손서 벗어나있다” 비난에, “하나님축복 받는 자는 핍박받는다” 성구인용 변호

나이지리아에는 테미토프 목사와 같은 대형교회 대중 복음 설교자들이 여럿 있다.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후, 나이지리아의 교회는 자생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대중 설교자들은 미국의 대중 복음 설교자들처럼 인기를 받으며 대형 교회를 만들어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

가들이 여럿 있다.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후, 나이지리아의 교회는 자생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대중 설교자들은 미국의 대중 복음 설교자들처럼 인기를 받으며 대형 교회를 만들어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

다.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 1억7,012만 명(2012년 추산) 중 기독교를 믿는 이들의 비율이 40%이며 무슬림 비율은 50%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적은 “하나님나라 오고 있다”는 표지!

(1면에서 계속)
표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도착했음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기적을 표지로 이해하면, 기적에 관해 신앙 성경이 보여 주는 부조화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수는 확실히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그는 기적에 대해 모순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기적을 행해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요구했을 때 그들을 비판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12:39)!

기 원했다. 그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는 사실을 예수에게 상기시켰다. 틀림없이 예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고 응답했다. 무리가 그 떡을 달라고 하자,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요6:35)라고 대답했다.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에게 기적적인 만나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내주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을 믿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했을 때는 기적을 언급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요10:25). 그들이 신성 모독을 구실로 예수

를 돌로 치려 하자,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요10:32) 요한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요12:37)라고 해설을 달았다.
또한 예수는 그가 낮게 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비밀로 해두라며

자신의 기적을 숨기려 한 적이 종종 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답은 표지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예수의 기적은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다. (어떤 바리새인처럼) 누구든 그것을 보고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사람은 위선자였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내선) /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8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내선) / (718) 886-4424 (광고국)
Fax: (718) 886-0074 (내선)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수시 입학이 가능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들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기적은 현상일 뿐 본질은 '예수'

(2면에서 계속)

그들은 빛을 찾는데도 말하지 모르나, 사실 빛을 보기 원치 않았다. 그들은 고속도로 표지판을 보고도 다른 길로 가기로 결심한 이들이었다.

표지와 기사가 요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이기보다는 현상일 뿐이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앞을 가리켰다. 따라서 표지에 집중해 더 많은 표지를 요구한 이들은 눈앞의 현상에 갇혀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같은 종류의 부조화가 보인다. 예수처럼 바울도 기적을 행했다고 알려졌다. 기적적인 회심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 사도행전 14:3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전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공의회

균형이 필요한 지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여지를 전혀 남겨 두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보다 기적에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로 충분하다고 한 개신교 한 전통은 틀렸다. 결국, 예수에게도 충분하지 않았다. 예수가 온 삶으로 드러낸 하나님 나라의 표지는 죽

타나는 이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연과 초자연의 분리는 것이 비성경적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날씨를 생각해 보자. 틀림없이 성경은 구름을 일컬어 하나님의 병거라 하고, 매일의 날씨 변화가 하나님 권능의 역사라고 한다(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나 의롭지 않은 자에게나 비를 내리신다). 이런 사실들은 기상학과 긴장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담고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자연적인 동시에 초자연적이다.

어거스틴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는 기적을 자연 법칙의 위반으로 이해하지 않고(어떻게, 왜 하나님



자연과 초자연 분리하는 것은 비성경적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며 유지하는 분

앞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변호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행15:12)를 자세히 묘사했다. 누가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19:11-12).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고후12:12)을 보았다고 적는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롬15:18-19)을 언급한다. 분명한 것은 예수처럼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행하거나 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랐다는 암시는 보이지 않는다. 바울은 결혼과 가족생활, 성찬과 기도, 생활의 여러 실제적인 측면만 가르칠 뿐이다. 그는 한 번도 기적 사역에 관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

틀림없이 신앙 성경은 기적에 관해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기독교 사역에는 기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기적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오해를 범하는, 세심한

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본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신앙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 역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낼 때 누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그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표적에 마음을 열고 그런 표적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 선인 양 추구하지 않아야 할 책임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일 뿐이다. 본질은 예수다. 고난 받고 죽임당해 장사됐다가 부활해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예수다.

기적에 관한 혼란은 대부분 지나친 열광이나 회의적 시각 양쪽 모두 계몽주의 시대에 발전돼 이제는 서구식 사고 속에 깊이 뿌리박힌 일련의 사상에서 기원한다. 그런 혼란은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하는데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는, 초자연적 사건은 하나님이 기계적인 자연에 관여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암을 제압하신다.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기계적 자연의 기어에 손을 대서 다른 방향으로 돌게 만드신다. 자연과 초자연은 완벽하게 갈라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 나

이 자신의 작품을 위반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비성경적 길을 통해 걸어오시는 사건으로 이해했다. 이를테면 기적은 매일 매일의 해오름보다 하나님 숨결이 더 깃들어 있는 사건이 아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에서 비성경적 방식으로 일한 것뿐이며 단지 무엇인가 중요하다는 신호다.

기적이 하도 예외적인 일이라 우리는 그 앞에 멈춰 서서 경탄을 보낸다. 기적의 비성경적 특징인 희소성으로 인해 기적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그것이 표적의 역할이다. 표지는 주변 환경보다 도드라지게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겠는가?

결국 예수가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밀밭 추수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바작 마른 밀알 한 알이 밀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지만 해마다 전 세계 수천수만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온 세계를 먹여 살린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에 경탄하지 않는다.

예수는 수천 명의 무리를 위해 점심을 여러 곁절로 만드셨다. 그 일이 밀 수확보다 중요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두터워져서 아니라, 다만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이다. 이는 예수, 곧 평소 밀을 만들고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그가 비성경적 방식으로 활동한 표지다. 그의 나라, 오래전 약속한 그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표지인 것이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나의 생각을 생명을 향하여 뺏어라 그리하면...

시 80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나이다"(8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옮겨진 그곳의 토질과 환경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자랍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세상을 인격적인 것으로 살피 볼 때에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기근을 면할 정도의 분량 뿐이고, 대부분은 세상의 것 즉 죄로부터 나오는 사망의 인격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람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살면서 사망의 열매인 들 포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악의 인격적 환경에서 생명의 환경, 즉 하나님 안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 그 땅의 영향을 흡수하여 살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의 영향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의 영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 없으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가득 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 가운데서 뺏어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대로만 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 결과는 사망의 지배 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시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공급받을 것으로 사는 인격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4:4)고 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인격의 힘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십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본문 9절은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라고 하였듯이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안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박힙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라도 공급받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학문과 재물 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견고하게 자라고, 좋은 나무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옮기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영적 공급을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말세에는 영적 기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시달림과 고통을 받고 힘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하면 세상이 나를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안에는 마귀가 뿌리는 사망의 가라지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노동은 하는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강을 향하여 뺏는 노동을 하여야 하듯이 우리의 생각이 염려와 근심을 향하여 생각의 뿌리가 뺏어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미움과 분노가 있는 곳으로 생각이 뺏어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시라. 뿌리는 강을 향하여 뺏어 나가야 삽니다(렘17:8). 그리할 때에 우리는 더위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게 하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생각을 내리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 안으로 내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무로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존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여,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아야 그 나무는 자라고 무성하게 되고 결실하게 됩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육지로 향하여 뺏어 나가면 나무는 죽습니다. 생명의 강을 향하여 뺏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아멘.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환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 (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제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I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친구에 대한 회상

저녁식사 후 아내가 쟁반에 시칠리아 산 오렌지를 내왔다. 겨울철에만 생산되는 과일로 큰 사과 정도 되는 크기로 아주 달고 시원한 맛을 낸다. 칼로 반을 짝 따르면 속이 온통 감분은 피 빛이다. 그래서 처음 온 유학생들이 먹으려다가 상

한 것으로 여겨 버리기도 한다. 나는 이 과일을 볼 때마다 오래전 안식년으로 로마에 왔던 친구를 회상한다. 그는 나와 동갑내기였다. 80년대만 해도 해외를 나오기가 아주 힘들었던 때였다. 그는 당시 대학의

전임이었는데 행복하게도 안식년으로 일 년 동안 학교에서 보내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드물었는데 학교의 설립자의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했다. 장차 학교를 그에게 맡기기 위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로마를 너무 좋아해서 안식년이 끝났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그를 믿었기에 계속 기다려 주었고, 그런데 3년이 지나자 학교 측에서 걱정이 되어 연락을 했고 급기야는 그의 아내가 어린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데려다 왔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남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남편을 빨리 데려가겠다는 모진 마음이 헤아렸는지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고 있었다. 부부가 충정도 출신이라서 만사가 느려서 그런지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데려다 온지 벌써 일년여가 지나고 있었다. 고국을 맡겨둔 아이들 걱정이 클 텐데 말이다. 그런 중에 아내의 간청으로 3년 만에 드

디어 귀국을 결심하였다. 그는 일단 짐들을 배편에 보내고 마지막 밤을 우리와 함께 보냈다. 식탁위에는 그가 유난히 좋아했던 시칠리아 산 오렌지가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귀국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또 먹을 수 있겠느냐며 연신 오렌지를 손에 쥐고 쓰다듬다가 이내 껍질을 벗겨 입에 넣곤 했다.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보다 1년 이상을 로마에 먼저 온 그였다. 우리가 로마에 와서 아내가 병원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는 사전을 들고 동분서주하면서 이태리어를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귀국한다니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허전함이 온 몸을 짓누른다. 당시 로마에 한국 사람이 몇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친구가 정말 가고 없다면 나는 이곳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다. S. 손슨이 말한 대로 친구는 많지만 친구가 없는 세상인데 말이다.

왜 세상은 이별이란 날말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별이 것처럼 속을 후벼 파는 것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작별을 한 후 가끔 전화나 편지로 연락을 하곤 했다. 가까이 있을 때처럼 수시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친구란 이런 것이구나! 여기가 될 정도로 말이다. 친구는 서울에서, 나는 로마에서 수천 킬로의 간극을 우정으로 메우며 지냈다. 그런 중에 그가 60이 조금 넘는 나이에 병원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이가 들었으니 병원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친구가 현재 건강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전해 들었다. 소문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괜 찮다면서 오히려 외국생활을 하는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나는 책장 안에 고약한 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되었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믿음이 남다른 사람이니 병

을 이길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병을 딛고 일어나 그 병에 걸려 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 것으로 믿고 기도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의 소망과는 다르게 친구의 부음이 들려왔다.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는 신실한 장로였으니 아름다운 본향에 들어갔을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영영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닐까? 그러나 시간은 슬픔의 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언젠가는 슬퍼하던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추억은 내 마음에 어딘가에 각인되어 가뭇없이 사라졌다가 손살같이 살아나곤 하겠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나는 희미한 새벽처럼.

아내가 답아내운 시칠리아 산 오렌지에 실려 온 친구의 얼굴이 뿌옇게 형상화되었다. 오늘 따라 유난스럽게 친구가 보고 싶다.



푸/ 른/ 초/ 장

곽덕근 목사
(은혜와 평강 교회)



요한복음 20:19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11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다. 호랑이가 얼룩말의 목덜미를 한 번 물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염려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다. 염려가 한번 시작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의심이 많아지며 결국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와 육을 질식시

나 해로운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면 먼저 염려를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고 권고하십니다(벧전5:7).

굴의 주름살을 없애는 보톡스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 나에 따라서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평강이 찾아오기도 한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 우리의 가정을 나뉘게도 하고, 평안한 가운데 화목하게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

2.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6절)“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리며 행복하게 사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3.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다. 여기서 ‘지각’이란 영어로 ‘understanding’ 즉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뛰어난’이란 ‘뛰어 넘는다’, ‘초월한다’는 말이다.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

“폐하, 잘된 일입니다 감사 하십시오”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왕의 총에 총알이 잘못 장전되어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다. 그러자 신하가 말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식인종들에게 붙잡혔다. 식인종 추장이 가만히 살펴보니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었다.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난, 흠 있는 음식은 안 먹어!” 추장은 왕을 풀어주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말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 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 빌립보서 4:6-9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얼굴과 입술의 말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키고 만다. 그러므로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 빨리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 마음 속에 염려를 품고 있으면 심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건강만 나빠지게 만든다. 염려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되고, 밤에 깊은 잠도 못 자게 된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엔 두려움이 생긴다. 잠 17:22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염려와 근심이 건강에 얼마

오늘 본문에는 염려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기에 ‘나의 염려’이다. 반대로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평강’이다.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두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평안이 찾아온다. 마치 전쟁할 때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고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인 보툴리누스균이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얼

기도는 근본적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염려하는 나에게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

칼 윌튼은 행복의 조건 중 첫째가 감사라고 말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지리라,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으리라,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하리라”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

이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롬 8:28)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기도해 보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라. 그 순간 새 마음이 주어지고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부모님께 감사하라. 자녀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염려를 제거하여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기도범위를 확대하라

10월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저녁) ~ 25일(목, 저녁) (매일 오후 7:30, 오전 10: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감사 : **조성근 목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교역기도원(전남)장로- LA성도
나사렛 대학로 권일호수/ABSTRACT/COMA 운영이사
홍산역 학교(Tr. LA/Tr. D. com)/미국 CRUD. Min)

1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권국의 영성에 취해 온 갈멜산교역부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된 기도원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링컨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기도회를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설교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성미주회목-각종주회목-평화회 목회하는 교역부들과 각종위원회 기도성회에는 성미주회가 있는 담임목사와 함께 진행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재신자들은 믿는 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격려자들은 권고하고 심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어 사탄적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과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여기게 꽃망울이 됩니다.
저렴도 기도물 제정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담라입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LA. MIJU GALMELSAN PRAYER CENTER

| 담임목사 | **조성근**

| 부목사 | **황건영** | 전도사 | **김성희**

Tel: (818) 306-4912 www.galmelsan.or.kr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6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 소장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한 자녀교육 세미나와 주일학교 교사세미나 그리고 목회자세미나를 한국 에듀네스트 원장 김만형 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난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브레아 나침반교회에서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자서 'SS(Sunday School)혁신 보고서'와 'SS자녀교육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온 김만형 박사의 강의는 학부모님들은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도전과 변화를 주는데 충분했습니다. 4일 동안의 강의 중에서 중요한 요점을 독자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적 특성과 오는 세대들의 성장배경과 특징을 분석해 교육의 적중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일학교 교육에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교육철학을 세워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면 3가지로 구분해서 접근해갈 수 있는데 첫째는 영혼하는 실재를 추구하는 것(형이상학)과 둘째로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식론) 그리고 셋째로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가치론)입니다. 이상의 3가지를 추구하는데 답을 찾은 사람을 가리켜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는 자의 태도가 기독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심자기에 죽으심이라"고 가르치는 자의 태도에 관한 교육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는 자의 태도가 기독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심자기에 죽으심이라"고 가르치는 자의 태도에 관한 교육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디모데 후서 3장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 분명한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전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知)와 정(情)과 의(意)가 어느 한 쪽으로도 취우치지 않은 영적성장과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을 말하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는 교회는 성경 읽기나 암송 또는 성경공부 등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느 교회는 신비적인 체험 즉 방언이나 금식기도 또는 예언 등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사회정의 구현을 부르짖고 실제로 균형을 일으켜 데모를 하는 등 사회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육목표가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교육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한국의 정치가들이 최근에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의 신학생

A: 국제사면위원회(UNESCO) 한국지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할 약속 중의 하나로 지목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와 가톨릭에 이어 개신교의 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인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위원회는 2000년 7월에 설립10주년을 맞아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엔 정치계에서도 야당은 주로 폐지론을 강조하고 여당의 한 지도자는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정치의 쟁점이 된 적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합무라비법전과 구약성경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인류사회의 가장 오랫동안 시행되고 존속되어왔던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사형제도의 철학적 바탕에는 공리주의 사상과 응보적 정의사상이 깔려있습니다. 즉 사형제도는 사회의 선량한 다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과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돌려주어야 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

사형제도 옹호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해 흉악한 범죄를 억제(deterrence)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또 동일한 흉악범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예방(prevention)효과와 더불어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구현하는바 법 정신과 국민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권인 생명권을 앗아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간적인 제도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비문명화 된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야만적인 법이기에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20세기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전쟁(Just war)이 가능함을 지지하는 신학적 전통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와 학자들은 사형제도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전통의 교회와 칼빈주의 교회에는 일반적으로 사형제도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연합감리교회(UMC)와 미국장로교회(PCUSA), 미국개혁교회(RCA)와 같이 진보적인 교회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은 창9:6절의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와 롬13:4절 "그가 -즉 정부가-공연한 칼을 가지지 아니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충하는 자니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너무나 귀중하기에 보호해야 하고 만약 그 생명을 파괴한 자는 죽음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비기독교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생명이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자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생명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폐지하지 않는 사형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 섬겨야 교육목표는 자정의 균형 잘 유지돼 온전케 되도록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실재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곧 하나님이신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2가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즉 일반 계시(자연)와 특별계시(성경)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 일반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도 절대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을 결정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피교육자에 대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는 가르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보다는 가르치

가르치는 자(교사)는 첫째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교사는 자신의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맞추어 아이들과 동화되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음성의 높기도 가능한 아이들과 동화될 수 있는 웃음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도 TV에서 아이들 목소리나 어린 아이들 노랫소리가 나오면 TV 앞으로 달려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리에도 그들이 통하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위나 자존심 같은 것들을 벗어 버리고 아이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사는 불편함을 기쁘게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복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참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

은 자의 태도가 기독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심자기에 죽으심이라"고 가르치는 자의 태도에 관한 교육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정의 균형이 잘 유지 되도록 교육목표를 잘 세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빌립보서 2장7절 이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곧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차세대 교육에 대책이 없지만 그나마 관심을 가진 교회들은 대체로 방법(Method)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방법론적인 주일학교 교육에 앞서 분명한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서 좀 더 실질적인 삶에 적용되는 교재를 개발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하루쿠(HARUKU)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금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00여개의 뚜렷한 인종들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남동쪽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아 대륙 사이의 해로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연계해 있다.

하루쿠종족은 몰루카스(Spice) 섬에 있는 한 작은 섬에 위치해 있다. 이 섬의 연계는 인도네시아의 동쪽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술라웨시(Sulawesi)와 뉴기니아 사이, 그리고 티모르와 필리핀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연계 안에 있는 북쪽 섬들은 할마헤라(Halmahera: 모루카스에서 가장 큰 지역), 모로타이(Morotai), 테르나테(Ternate), 티도레(Tidore), 마키안(Makian), 바칸(Bacan), 오비(Obi), and술라(Sula)이다. 남쪽섬들과 중앙의 섬

들은 부루(Buru), 세람(Ceram), 암본(Ambon), 반다섬들(the Banda Islands), 카이(Kai), 아루(Aru), 타남바르(Tanimbar), 바바르(Babar), 키사르(Kisar), 그리고 웨타르(Wetar)를 포함한다.

삶의 모습

북쪽 몰루카스의 정향나무와 중앙섬들의 육두구는 유럽이 Spice섬에 대해 듣기 전 아시아에서 거래됐다. 1511년 포르투갈이 도착함으로써 수십 년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이 이 기간 동안 많은 생명을 잃게 했다. 승리했던 독일은 많은 이익을 얻었으나 18세기 말엽에는 향신료 상업이 거의 사라지고 그 결과 몰루카스는 더 이상 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문화는 많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합쳐진 문화이다. 인도

의 힌두와 불교 사상의 영향이 깊고 그 나라의 건축과 조각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라비아 영향은 13세기 이래로 번성했고, 대부분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라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섬들이 또한 남동 아시아와 폴리네시아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과 독일인들의 유입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두 차례의 우계가 있다. 11월로부터 3월까지의 우기와 6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가 있다. 우계 사이에는 기후가 좀더 온화해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화산의 흙은 농작물이 자라기에는 이상적이다. 이는 숲이 풍부하고 땅의 2/3를 차지한다.

지진은 몰루카스에서 자주 일어나며 대부분의 섬들은 산악지

역이다. 테르나테(Ternate)와 반다(Banda) 같은 다양한 섬에는 활화산들이 있다. 그러나 타남바르(Tanimbar)와 아루(Aru)는 낮고 습지가 많다. 몰루카스의 기후는 열대성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매년 80-150인치의 비가 내린다. 어떤 지역에는 대부분의 섬들을 전반적으로 덮고 있는 열대다우림이 고르게 있으며, 이 지역에는 경작되어지고 있다. 또한 사반나에 땅들, 그 연안에는 종종 망그루브 늪지대가 주변에 있다. 사냥과 어업, 사교(sago) 풀을 모아서 음식을 얻는다. 코코넛은 광범위하게 자라고 주된 수출은 코프라(copra)와 숲에서의 생산물과, 향신료와 생선들이다.

신앙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은 연안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신앙들을 가

지고 있지만 내륙지역에는 많은 사 람들이 정령신앙인들이다. 종교의 자유가 인도네시아 의회에 의해 보장됐다. 다양한 형태에서의 이슬람은 이 국가의 가장 지배하는 신앙이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국가다. 하루쿠는 95%가 무슬림이며 4%는 기독교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루쿠는 그들 자신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기독교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없다. 성경번역과 그들 언어로 된 예수영화가 모두 필요하다. 열심있는 종재와 선교사역이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며 복음전도는 먼 지역의 섬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캘리포니아주,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미성년 동성애자들의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심리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미성년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심리 요법을 금지하는 법안에서 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른바 '전환치료'가 금지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성애는 병이 아니므로 전환치료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온 동성애 권리 옹호론자들이 반대 측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 테드 리우(민주·토론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심리치료사들이 18세 이하 미성년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 의원의 법안은 미국 정신의학회와 캘리포니아 심리학회, 캘리포니아 행동과학회 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해당 치료법을 처음 주장했던 로버트 스피처 박사도 지난 5월 자신의 연구가 오류를 범했다며 동성애자들이 사과한 바 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채드 그리핀은 "쓰레기 과학으로 틀렸음이 드러났고 철저히 부정적 영향만 끼친 것으로 입증된 요법으로부터 이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젊은이들이 보호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리핀은 또한 다른 주 정부도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번 법안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인들이 의학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집트 콥트교도, 살해 위협에 고향 탈출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 거주하는 콥트교도들이 살해 위협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집트 보안 당국은 "시나이반도 북부의 라파 마을에 살던 콥트교도 가족들이 지난주 이슬람 무장세력의 살해 위협을 받고 떠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은 마을 교회가 위협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기독교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는 최근 무장괴한의 자동소총 공격을 받았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이 가족은 라파 마을을 떠나 열 아리쉬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번 기독교도 가족의 이주는 시나이반도를 포함해 이집트 전역에서 종교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나이반도 북부에는 콥트교도 인구가 5천~6천명 거주하며 라파에는 약 7가구 살고 있었다.

이집트 콥트교도는 지난해 초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이슬람주의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종교 차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게다가 이슬람권 전역에 반미 시위를 촉발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모독 영화 제작자가 콥트교도로 알려지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보복도 걱정하고 있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로, 이집트 전체 인구 약 8500만 명의 10%가 콥트교도이다.

러' 법원 '무슬림의 순진함' 영회금지 판결

러시아의 한 지방법원이 28일 세계적으로 이슬람 신자들의 분노를 산 미국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극단주의 영화로 규정하고 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켰다.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체첸자치공화국 수도 그로즈니의 한 지방법원이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체첸자치공화국 민족정책 및 공보장관 무라트 타기예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타기예프 장관은 "문제의 영화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와 그 추종자들의 삶을 왜곡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레닌스키 지방법원에 이 영화를 극단주의적이고 종교 및 민족 간 증오를 부추기는 영상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이 영화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상당수가 이슬람 신자인 체첸을 포함한 북(북)캅카스 지역 정치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법률상 한 지방법원이 극단주의 영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국내 전 지역에 적용된다. 만일 다른 지방법원이 앞선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 최고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법원은 다음달 1일 문제의 영화 금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러시아 통신감독청은 앞서 이동통신사들에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서둘러 가입자들의 영화 접근을 차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캅카스 지역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하루 전부터 '무슬림의 순진함'이 게재된 유튜브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빈라덴, 무슬림형제단서 제명 당해

알카에다 창시자인 오사마 빈라덴이 생전에 한 쪽 눈이 멀었으며 알카에다를 조직하기 전에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단체 '무슬림 형제단'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해 5월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된 빈라덴의 뒤를 이어 알카에다를 이끌고 있는 알 자와히리는 27일 공개된 비디오에서 "빈라덴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맘(종교지도자)과 함께한 날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비디오는 알 자와히리가 빈라덴과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만든 세 번째 시리즈 영상으로, 미국에 본부를 둔 극단주의 단체



웹사이트 '지하돌로지'에 공개됐다.

알 자와히리는 흰색 가운과 터번 차림으로 영상에 등장해 대본 없이 답답하게 빈라덴에 얽힌 일화를 털어냈다. 알 자와히리는 빈라덴이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기 전까지 무슬림형제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빈라덴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아프간으로 건너가 소련군에 맞서 싸웠으며 이 때 훈련한 요원들을 중심으로 알카에다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 자와히리는 "무슬림형제단은 당시 빈라덴에게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에 있는 '제마 이슬라미야'(이슬람 테러조직)로 갈 것을 명했지만 빈라덴은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로 가서 무자헤딘(이슬람전사·탈레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을 도왔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비디오 내용을 보도하면서 "빈라덴이 소련에 맞서 '성전'(聖戰·지하드)을 주장하다가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제명당했다"고 전했다. 빈라덴과 무슬림형제단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 자와히리는 현재 파키스탄의 한 부족 지역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디오는 두 달 전쯤 녹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인 과반 "오바마 토론의 승리 예상"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오는 3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를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경합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달 26-29일 전국의 성인 1천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후보 토론회 승부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는 응답자가 56%에 달했다.

이는 롬니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응답(29%)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밖에 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무응답이었다.

(7면으로 계속)

담임 목사 청빙

덴버 한인 장로 교회에서는 양 무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1세와 2세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며 뚜렷한 신앙 비전과 겸손으로 목양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
2. 정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이상 단독 목회 경험이나 부목사 경험이있는 분
3.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보써 35세 ~ 50세 초반

제출 서류

1. 본인과 사모 소개서(최근 가족 사진 첨부)
2. 신앙 간증문과 사역 비전 및 계획서
3. 최근 설교(6개월 내) 동영상(web address) 이나 CD 2회본
4. 목사 추천서(2인 이상)
5. 학위 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및 안수 증명서

참고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제출처

우편 혹은 e-mail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Denver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 교회: (303)422-8950 | info@kpcod.org
덴버 한인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 위원장: 최명욱 장로 (303)422-8777

제출 기한

2012년 10월 31일(당일 도착분에 한함)

담임 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사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에인목회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낼)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보낼곳

이메일: sangwoo@aboglobal.net
담당자: 담임서기 우성민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참고 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익는 이메일로만 발송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2.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청빙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임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임시 담회장 임동학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 발송합니다.

405.966.8888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투고칼럼



이용남목사 (헤세드글로벌 미션교회)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다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식일 개념의 주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주일을 대한다. 율법적 관점의 목회자들은 주일성수하지 않는 성도를 정죄하고 책망한다. 성도를 또한 주일성수를 하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성도가 주일을 여기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회자들의 마음이어야 하겠다.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일들은 '주일과 안식일은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 때부터라고 쉽게 단정한다. 그것은 창2:2-3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맞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 보라.

십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시대까지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제정 공포 선언 시기는 출애굽이후 시내산 율법수여부터이기 때문이다(출20:8-11). 우리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

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로라"(출20:2).

구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는 그들의 신분과 삶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함께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셨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주었다는 점이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상목표요 삶의 절망의 삶 속에서 안식일이 더욱 절실하고 필요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여전히 율법적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제사하게 함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내나 너나 딸이나 너나 남종이나 너나 여종이나 너나 유축이나 너나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20:9-10).

안식일은 쉬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동에서의 자유

와 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최초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죽음은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이었다(민15:32-36) 결코 제사를 여겨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

에덴동산을 기업으로 받은 아담에게는 안식일이 따로 없었다. 모든 날 들이 안식이었기 때문이다. 지상 낙원인 에덴은 그 자체가 안식이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사방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온대 살아가는 안식일을 거역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문제 삼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막2:27)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제사도 단순한 쉼도 아닌 인간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회복으로 발전시키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리라'(마11:28)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삼 일만에 부활하셨다.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날이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한 날이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주일은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의 회복이다. 이제 예수 안에서 안식일은 매일 매일인 모든 날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 회당을 선포하고 부활로 회년을 완성하셨다. 주일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회년의 성취인 것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동시에 영적 삶의 안식이 필요한 그리스도

였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수시로 성막에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안식일과는 별개였다. 안식일은 제사개념이 아닌 쉼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점차 제사개념으로 바뀌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전통적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의 행동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한 사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삼십 팔년 된 병자를 베데사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사건 모두 안식일 날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더불어 안식일을 거역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문제 삼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막2:27)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제사도 단순한 쉼도 아닌 인간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회복으로 발전시키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리라'(마11:28)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삼 일만에 부활하셨다.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날이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한 날이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주일은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의 회복이다. 이제 예수 안에서 안식일은 매일 매일인 모든 날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 회당을 선포하고 부활로 회년을 완성하셨다. 주일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회년의 성취인 것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인 동시에 영적 삶의 안식이 필요한 그리스도

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은총의 날이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육체적 안식을 제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안식을 제공한 것이다.

주일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상받이고 구별된 거룩한 날로 율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복음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복음적 관점에서의 주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을 뿐이다. 만약 성도가 주일 성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안타까움과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 영적 배고픔과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나누지 못한 슬픔이 있어야 한다. 막연한 죄책감이 아닌 영적 슬픔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팔복의 삶이다. 영적 쉼은 영적 배고픔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올바른 주일 성수는 첫째,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영적 생명의 말씀을 먹는 날이요 셋째, 사랑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축제의 날이요 넷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요 다섯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영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어야 한다.

거룩한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예수 안에서 매일 안식을 누리라.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날이기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 천국을 맞보려거든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가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 영혼의 안식처이다.

(6면에서 계속)

또 이른바 '적극 투표층'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5%로, 롬니 후보(31%)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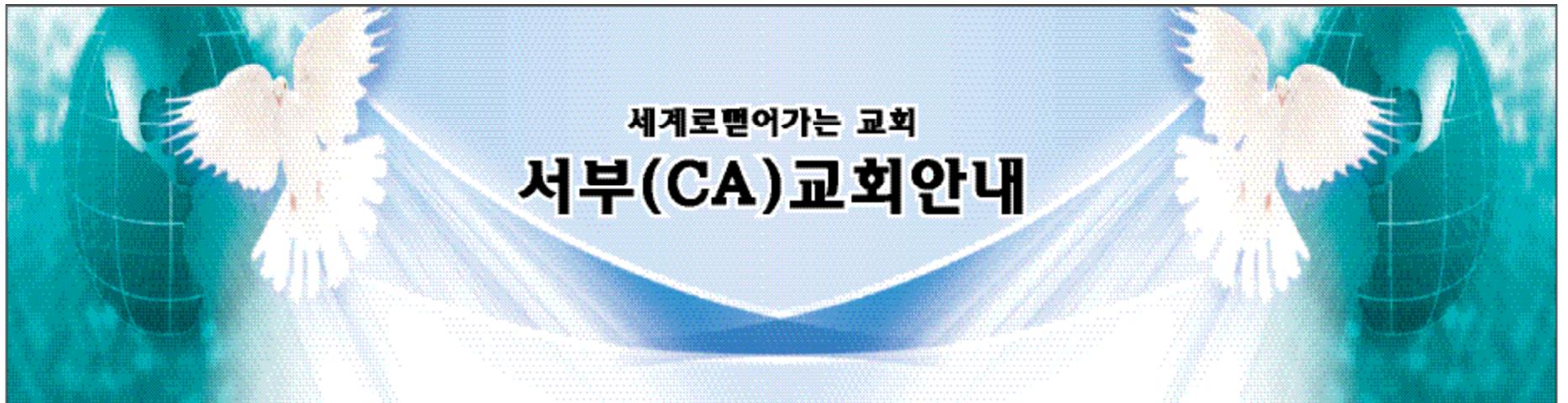
전국 지지율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각각 49%와 47%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주에서는 52%와 41%로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테버릭 시작으로 모두 3차례 열리는 대선 토론회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롬니 후보로서는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롬니 캠프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CBS방송에 출연, "솔직히 말하면 최근 몇주간은 좋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첫번째 토론회 다음날인) 4일 오전에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50%가 '지지한다'고 밝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6%)을 웃돌았다. 이는 과거 대선 한달전 재선을 노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빌 클린턴(59%), 로널드 레이건(58%)보다는 낮지만 조지 H.W. 부시(36%), 지미 카터(37%)보다는 높은 것이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같았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와 반대의 응답 비율이 각각 47%와 52%로 나타나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갑부로 알려진 롬니 후보의 남세실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남세실적을 공개했던 올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롬니 후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작년 남세실적 공개 직후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8%(공정하다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V대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되며 나머지 토론회는 오는 16일과 22일에 열린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평일 4부 예배: 오후 7:30 목요찬양대: 오후 7:30 www.gamsananchurch.org Tel: (714)991-0911, Fax: (714)991-4268 6949 Knox Ave, Brea, CA 92625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30 수-금 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nasunsun.com Tel: (213)311-1111, Fax: (213)311-6666 1759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형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0:00 평일 예배: 오후 7:30 한글 예배: 오후 7:30 www.nasunghinmun.com Tel: (213)419-8396, (714)215-1811 1828 Wilshire Blvd.,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9:45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10 주일 6부 예배: 오후 12:30 주일 7부 예배: 오후 7:00(한글)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youngh.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37-1463 / Fax: 323-237-0719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nasungbu.com Tel: (323)229-7322, (714)232-6222-6230 1219 E. Polaris Ave., L.A., CA 90039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EM, 내국어: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www.nachimbun.com Tel: (213)441-0911, (714)283-6222-623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5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8:30 주일 6부 예배: 오후 5:45(한글) www.dundundun.com Tel: (714)441-2778 / Fax: (714)441-8977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5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목요 찬양대: 오후 7:00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leaders.com Tel: (916)433-6523, Fax: (916)433-1123 501 S. Heald Ave., L.A., CA 90059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조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한글) www.lovingchurch.com Tel: (714)772-7777, Fax: (714)772-6777 1111 N. Broadway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예배: 오후 7:00 www.daeheung.com Tel: (213)742-2844, Fax: (213)742-2229 10411 S. Florence St., Gardena, CA 90248	등문교회 담임목사: 최재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새가족: 오전 9:30 목요 찬양대: 오후 7:45 www.dungmun.com Tel: (213)402-9625, Fax: (213)402-9678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0:30(한글) www.dongyang.com Tel: (213)402-1234, Fax: (213)402-9819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박영은 목회: 권영국 목사 "세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목회: 권영국 목사 www.asiaphorachurch.com Tel: (213)209-7778 (한국어), Fax: (213)209-9666 1275 Gairloc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00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dreamchurch.com Tel: (626)252-6221, Fax: (626)252-6222 1302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한글) www.samsungchurch.com Tel: (213)383-9611, Fax: (213)383-9611 507 S. Linden St., The Oaks,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한글) www.michuan.com Tel: (213)260-9377, 6279 519 E. Western Ave., L.A., CA 90025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경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 예배: 오후 1:45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michuan.com Tel: (213)261-0211 / Fax: (213)261-0211 1705 Harvard Ave., L.A., CA 90012	메델안인교회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9:45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30(한글) www.medellanchurch.com Tel: (323)434-4210 / Fax: (323)434-4210 1705 Harvard Ave., L.A., CA 90012	민쿠버빌리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새가족: 오후 7:30 www.minkub.com Tel: (626)854-6765, Fax: (626)854-6717 2726 132nd St., Surrey, B.C., Canada, V2V 6W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한글) www.bible.com Tel: (626)284-6216 172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62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성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www.bridgechurch.com Tel: (916)239-4177 1067 E. Pacific St., Corvallis, CA 97331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임정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9:00 주일 5부 예배: 오후 11:30 주일 6부 예배: 오후 7:30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segyebition.com Tel: (916)343-2947, Fax: (916)343-2947 15714 Alhambra St., Northridge, CA 91329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주일 5부 예배: 오후 9:30(한글) www.segyesomang.com Tel: (714)242-6190, Fax: (714)242-6227 6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인디우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30(한글) 주일 5부 예배: 오후 1:45 새가족: 오전 9:30(새벽), 오후 7:30(저녁) www.indian.com Tel: (916)242-6190, Fax: (916)242-6227 2725 Montecara, Montrose, CA 91025	일미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www.ymc.com Tel: (916)627-9423 / Fax: (916)62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14	오렌지카운티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정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www.occ.com Tel: (714)801-2029 / Fax: (714)723-3027 8200 Blake Ave., Westminster, CA 92692	오케션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www.okee.com Tel: (714)242-4290 2726 James W Wood Blvd., L.A., CA 90026	원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www.wonsichurch.com Tel: (916)264-6272, Fax: (916)264-6228 634 E. Normandy Ave., L.A., CA 90005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 주일 5부 예배: 오후 8:00 www.eunghyeanchurch.com Tel: (714)444-2913, Fax: (714)444-4267 1646 W. Veneta Ave., Fullerton, CA 926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진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www.inland.com Tel: (909)222-2324, Fax: (909)222-1489 1191 W. Gipe Ave., Pasadena, CA 911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www.youngang.com Tel: (213)429-6226, Fax: (213)42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26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한글) 주일 4부 예배: 오후 4:30 www.changdae.com Tel: (949)499-5944, Fax: (949)499-2841 173 E. Dumas St., San Dimas, CA 92449	코네티크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www.konnectchurch.com Tel: (213)913-6644, Fax: (213)913-3444 2482 E. Walnut Ave., Norwalk, CA 90659	로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기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www.lorenzochurch.com Tel: 213-773-5554, Fax: 213-773-3123 19003 Mariner Ave., Torrance, CA 905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들 L.A.: Tel: (323)565-0009 Fax: (323)565-0048 N.Y.: Tel: (718)959-4400 Fax: (718)959-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의 날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학회)

108. 혹시, 사라진 조상들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근본에 대해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시편 11:3, 시편 28:5, 이사야 5:12-13). 과학자인 필자가 창조과학신교회의 사역자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라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확실하게 만든 것일까?

1.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사람

1) 창세기 1장과 누가복음 3장 38절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시다. 말씀만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창조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가 그 창조자라고 주장하는 믿을만한 존재는 성경의 하나님뿐이다.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우주 시간-공간-물질 3가지의 연속체로 만들어져 있어 그 분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성경의 주장이 과학적으로도 합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성경은 그 분의 증언이며(요 5:39) 그 증언이 사실이란 증거들도 무수히 많다. 그 증언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창1:26-27). 그런데 이 구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어떤 의학적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성경 밖에서 사람의 생각을 끌어들이기까지 하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3:38절(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시니라)

는 큰 곤란 가운데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24절)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인류가 처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도는 구원 받아 다시 살아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 기사가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교훈을 위하여 '꾸며 만든 재미있는 비유'로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2. 하나님의 형상을 모호하게 하는 진화론

인류의 시작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인류의 시작을 모르면 사람이란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가장 궁극적

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발견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교과서에까지 실어놓고 진화가 사실이라고 가르쳐왔다. 그 대표적인 증거 물질로는 라마피테쿠스, 필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자바인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대표적인 진화의 증거들은 모두 다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인류의 조상이 아닌 것 혹은 가짜로 조작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972년에 발견되어 '루시'라고 이름 붙여진 인류의 조상이 대표로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이것 역시 이미 전문가들에게 버림 받은 진화의 증거가 되었다. 인류가 진화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들에 속았고 지금도 속고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3) 거짓의 영향력

이 거짓 증거들의 영향력은 성경에까지 미치고 있다. 수십억 년 되었다는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창조이론들이 가르쳐지고 있고,



이 그림들이 생각 나십니까?

라마피테쿠스, 필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자바인 등 진화의 증거로 교과서에 수 십 년간 실려 있었던 것들이다. 각각 원숭이, 개, 멧돼지, 사람(간판원숭이)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진화론으로 세뇌 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 되고 있다.

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언급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39절)이라 했다가 예수님의 공격을 받자 그들의 아버지를 "하나님"(41절)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나 구약성경의 족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조상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예수님의 탐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려서부터 익혀 들었던 탐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 기사를 읽으면 이 부분은 비유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들린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랑 마음대로 살았던 아들이, 벗어날 수 없

인 질문이 되었다.

1) Homo sapiens라는 동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란 답이 적혀 있는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그 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이 세상 학문은 보이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답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은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사람은 그 분을 닮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확실시 하더라도 무언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유폴론적인 진화론이다. 그리고 사람을 저급한 동물에서 진화한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고등동물이라고 말한다.

2) 교과서에서 사라진 인류의 조상들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화석 증거물들

창조기사가 재해석되며, 창세기 1-11장은 사실이 아닌 신화가 되고 말았다. 초기 역사를 사실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알레고리로 읽기 시작했다. 결국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예컨대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 자연히 성경의 족보도 사실 역사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눅3:38)는 말씀은 눈에 여여지지 않는 구절이 되고 말았다.

창조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시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증언들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감격하게 된다.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롬8:15; 갈 4:6)라고 부르라고 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28:5).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성로교회)

잠잠히 신뢰해야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어늘..."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사30:15).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산할 수도 있고 조용히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평안이 주도해가기도 합니다. 풍랑이는 배 밑에 주무시던 예수님과 알쉬로 몸을 피내며 죽을까 난리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고 불안에 안절부절 합니다. 문제의 파도의 크기가 내 눈에 커보일수록 불안의 파도높이도 비례하는 것이 보통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아니 배가 전복이 되고 다 깨어질 지경에 어찌 그리 굳게 태평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보이죠?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것이 우리의 위기대처 법입니다.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한 나의 모습입니다.

원망하지만 답이 없으니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 하나님을 결국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가운데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비스듬한데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는 너의 하나님이지, 나를 믿고 불안한 마음을 놓으라" 하시는데 그저 내 눈에는 광풍이 너무 커 보여 공포에 질려 하나님이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30:15,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우리가 절대 살아나야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돌아서서 마음을 잠잠히 해야 할 길이 보이고 조용히 주님을 신뢰함이 너의 힘이라 하십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묵상하며 마음을 소비할것이지 말고 불안해 떠는 마음을 사로잡아 조용히 진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길을 내주실 까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모든 문제는 아무리 짐재 같아도 그 분 손에 있어, 그 분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어. 문제가 너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순서를 보면 시끄러운 마음을 진정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가는 과정 설명입니다. 속이 시끄럽고 불안정하면 불안이 내 마음을 휘둘러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나는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문제공포증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오히려 흥분상태에서는 거의 그릇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실제 삶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 사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한데 현실에선 계속해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물이 더 차올라 때는 어찌해야하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해봅니다.

내 눈에 해결이 너무 느려 보여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듯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사실 많은 일을 하셨습디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이어서 물이 잘 때로 차아합니다. 물이 차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신뢰 못하고 있다는 표시이니 절대 신뢰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불안이 날 살라는 길도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런 일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관심의 총집중 대상이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나 나냐?"라고 광풍가운데 물으십니다. 정작 문제해결을 더 안타까이 기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문제묵상에서 돌아서서 시끄럽게 파도치는 마음을 조용히 쉬어주며, 내가 너의 살아갈 힘이니" 내 모든 문제를 통해 모든 것이 합하여져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을 인생의 왕으로 신뢰하며 마음을 평안으로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대처할 그분의 지혜도 주시며 길도 여시겠다고, 내 마음의 네비게이션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잠잠히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간절히 부르십니다. "오라오라 내게로 오라."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떠나는 교회</h2> <h3 style="text-align: center;">기타지역 교회안내</h3>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1:00, 수목 10:00, 목 7:00, 수 7:3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오전 8:00(월-토) Tel: (702)479-7079, Fax: (702)479-6981 966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9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1:00, 수목 10:00, 목 7:00, 수 7:3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704)647-6821, Fax: (704)647-6826 3816 Millers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Tel: (303)427-8363, Fax: (303)427-8363 7735 Kipling St, Aurora, CO 8001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910)327-2821, Fax: (910)327-9777 2810 Martin St, Lenoir, VA 24648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17)994-4447, Fax: (817)994-9558 1530 Woodbine Rd, Littleton, CO 80127		맨앨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410)393-9298, Fax: (410)393-6923 218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03)344-8478, Fax: (803)344-4497 7 Main St, Winston, NC 2709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410)327-3448, Fax: (410)327-3448 7600 Backlick Rd, Beltsville, MD 2070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준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704)281-0909, Fax: (704)281-0909 701 Scalayard Ave, Charlotte, NC 28206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Tel: (303)429-6581 8007 Pecan Ave, Littleton, CO 80120		시애틀경장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철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206)327-4447, Fax: (206)327-4447 4043 E. 52nd St, Seattle, WA 98115		시카고에브른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47)394-8424, Fax: (847)394-8479 877 Woodstock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알란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703)870-6048, Fax: (703)870-6179 805 Kirby Ave, Little Rock, AR 72217		앵커리지델린던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07)344-8448, Fax: (807)344-4187 8330 Greenwood St, Ann, AR 70518		앨파스델린던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03)527-5480, Fax: (803)527-5480 5419 Ance Ave, York, PA 174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걸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214)542-0288, Fax: (214)542-0287 704 Wheeler Ave, Houston, TX 77042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254)434-4703, Fax: (254)591-4823 428 W. 8th St, Abilene, TX 76904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세영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703)947-4447, Fax: (703)947-4448 4913 Matthews Rd, Alexandria, VA 22303		주여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410)297-5700, Fax: (410)297-5754 10201 Robson Rd, Richmond, VA 23225		큰우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상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410)297-0514, Fax: (410)297-0514 328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계근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253)837-1698 7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사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253)837-6207, Fax: (253)837-6242 5702 E. St. Seema, WA 98446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병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253)837-8975, Fax: (253)837-8975 8424 E. Thayne Ave, Tacoma, WA 98444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봉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480)725-0115, Fax: (480)967-3827 1920 E. Stovall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603)449-4743, Fax: (603)449-6665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h3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떠나는 교회</h3> <h3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지역</h3>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08)377-0911 1328-A Paloa Ave, Hilo, HI 96721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08)729-7054, Fax: (808)729-6282 1053 3th Ave, Honolulu, HI 96815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08)777-2526, Fax: (808)777-5422 1367 E. Bartolotta St, Hilo, HI 96721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구 주일 11:00, 목 10:00, 목 11:00, 수 7:00, 수 8:00, 수 9:00, 수 10:00 사배기도: 월-토 오전 8:00 Tel: (808)947-6262, Fax: (808)947-6481 2122 Mokuai Rd,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기사판



KAPC 뉴욕노회 수양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조문선 목사)가 주최하는 수양회가 10월 15일(월) 정오부터 16일(화) 정오까지 포코노 하워드존슨에서 열린다.

▲문의: (201)773-8059

뉴욕청소년센터 후원의 밤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최예식 목사)가 뉴욕청소년들을 위한 후원의 밤을 10월 15일(월) 오후 7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개최한다. 뉴욕 청소년들과 청소년 사역자들은 초청하는 이날에는 청소년센터의 새 청사진을 소개한다. 후원금 100달러를 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321-1010

주말 인턴십과 멘토링 훈련학교 오픈

워싱턴DC를 중심으로 미국 대도시에서 빈민교사사역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교회훈련을 시키고 있는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가 유엔 및 국제기구 리더십을 위한 무료 '주말 인턴십과 멘토링 훈련학교'를 연다. 오는 29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 유엔본부 인턴들, 영어권대학생들, 미국번호사들이 지도교사가 돼 전문적인 봉사활동은 물론 국제이슈에 대한 연구토론도 함께 제공한다. 주말학교 참가자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150시간이 넘는 학생들에게는 미국대통령자원봉사상과 함께 유엔국제기구 모임에 청소년대표단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문의: (571)259-4937

"Green Window" 숲속 미전도 부족대상

뉴욕중부교회 주최 2012선교대회 성료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해외선교위원회가 주최하는 2012 선교대회가 "Green Window"라는 주제로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선교대회의 목적은 아마존의 부족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부족들 중 미접촉 부족들이 숲이 깊은 밀림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여는 GREEN WINDOW를 주제로 정하고 이들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즉,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숲속에 숨어있는 1400개 미전도 부족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은 금, 토요일 저녁 집회, 토요일 새벽기도집회, 토요일 오후에는 영어/한어권 선교세미나가 있으며 저녁식사는 선교기금 만찬으로 진행됐다. 주일에는 중부교회 예배 순서에 맞춰 1, 2, 3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NCC영어 예배가 진행됐다.

강사는 현재 미전도 종족선교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4명의 사역자로 Jay Jackson 목사(현 Global Empowerment 총장), Eli

Leao Catachunga Ticuna 목사(현 남미 아마존 전 지역 인도 지도자 및 목회자 연맹회장이며 CONPLEI 공동부회장), Henrique Dias Terena 목사(브라질 CONPLEI 총장), David Palusky(Renew Outreach CEO) 등이다.

특히 짚는 목사는 필리핀 북부에 거주하는 Head Hunters 부족인 Bukalot을 섬기고 있으며 이들이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인 Agtha 부족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다.

지역 언어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Ticuna 목사는 아마존 미전도 부족들이 밀집돼있는 Vale Do Javari 지역에서 사역하며 인도 오 신학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Trans Amazonian Indigenous Network 부회장이던 Terena 목사는 남미 미전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인물이다. Palusky는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오디오 비주얼을 개발하는 발명가이기도 하다.

선교대회에 앞서 열린 27일 저녁 만찬은 장현택 선교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세미나 사회로 장 선교사가 맡았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성은자매 안락사반대

뉴욕교협, 노스쇼어 병원 앞서 기자회견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이만호 목사의 딸 이성은 자매(28)가 소극적 안락사 위기에 놓여있어 뉴욕교협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10시에 통일랜드 노스쇼어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아프리카와 중국 등에 선교도 다녀오는 등 성실한 삶을 보여온 이성은 자매는 지난해 뉴욕대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습하던 중 쓰러져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왔다. 올 4월에는 퇴원을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으나 7월초 다시 기력이 떨어져 9월 3일 노스쇼어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뇌종양 치료가 아닌 물린과 수면제를 투여해 현재 약물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은자매의



이성은자매 안락사반대 기자회견에서 이만호 목사(오른쪽)가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양승호 뉴욕교협회장.

혈압, 혈액, 체온, 산소공급은 정상이며 의사소통이나 기억력은 정상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성은자매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스를 빼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 성은자매가 "호스를 빼면 천

국에 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너는 천국 간다"고 말하며 가족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법원에서 날짜를 받았다. 그 날이 지난 9월 24일이었으며 간신히 1주일을 연장시켰으나 다시 10월

1일로 날짜가 정해졌다. 이에 이만호 목사와 교우들은 뉴욕교협에 도움을 청했다.

1일 기자회견에는 교협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순복음안디옥교회 교인들도 동참했다. 이만호 목사는 그간의 상황을 설

뉴욕교협 정기총회 앞두고 사전등록 공지

10월 15일까지 회비도 납부...ID지참 등 자격강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제 38회 정기총회가 10월 22일(월)로 예정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가 사전 등록에 관한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10월 15일(월)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평신도 대표는 소속교회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참석 시 범접ID 지참. △사전등록은 교협 사무실에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회비는 사전에 미리 납부해야 하며 당일에는 받지 않는다.

한편 총회 당일 가입이 된 교회는 다음회기부터 선거권이 부여된다.

정기총회는 22일 오전 10시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정부회장 임원후보로는 △목사회장후보: 김중훈 목사(현 뉴욕교협 부회장,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부회장후보: 김승희 목사(현 뉴욕목사회 회장, 뉴욕초대교회 담임) △평신도 부회장후보: 이대연 장로(현 뉴욕교협 이사장, 은혜교회 사무) 등 3인이다. 이로써 이번 회기에는 경선 없이 단독 임원후보자들이 총회원들로부터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또한 뉴욕교협의 마지막 임실행위가 10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한국인그레잇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린다. 38회기는 9월말로 마치고 되지만 총회를 위한 준비로 모이게 된다고 교협은 밝혔다.

이에 앞서 9일(화)에는 39회기 정 부회장 임후보자들의 언론 토론이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기독교부합창단이 정기연주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찬양으로 전하는 기쁜 소식"

뉴욕기독교부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성료

뉴욕기독교부합창단(지휘 소유영, 반주 김정운) 제11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30일 저녁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찬양으로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라는 5가지 테마를 따라 총 15곡을 진행했다. 또 마지막에 '결신과 확신'까지 이어지는 찬양을 불렀다. 부부로 구성된 합창단원들은 이날 연주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출연해 남성합창(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함께 하시네), 어린이찬양(주님사랑

놀라워), 가족찬양(비전) 등의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아름다운 교회 여성합창단(지휘 김명지, 반주 박선경)이 찬조 출연해 '하늘 영광 내 맘에 임했네', '주님' 2곡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매 순서마다 큰 호응을 얻은 부부합창단은 마지막 곡을 합창한 후 앵콜 요청을 두 차례나 받는 등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뉴욕기독교부합창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지 1403호 16면을 참조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필그림교회 설립15주년기념 부흥회 및 심포지엄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설립 15주년을 맞아 부흥회를 개최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Walking with God)라는 주제로 강사는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담임)이다.

5일부터 사흘간 열린 부흥회에서 이수영 목사는 첫날 저녁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롬11:33), 둘째날 새벽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삼하6:1-11), 저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벤전2:11-12), 그리고 주일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4:17-26)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한편 필그림교회는 10월 6일(토) 제 1회 미주전우회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God's Heart for Unity)라는 주제로 강사는 RCA 사무총장 웨슬리 그랜버그-마이클슨 박사.

이번 심포지엄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뉴브런즈윅신학교와 한국 새문안교회 그리고 필그림교회가 공동주최한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이스터 썬즈 아동발달센터서 공연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27일 뉴욕 브롱스에 있는 2-4세 장애아동 어린이의 학교인 이스터 썬즈 아동발달센터에서 2회의 자선공연을 가졌다. 아이들과 교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공연에서 이노비는 클래식 악기로 구성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이뤄졌다. (기사제공: 이노비)

Table with church listings for NY and NJ, including name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KAPC, NY Synod, and others.

“교육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하다”

OC교협, 김만형 박사초청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교사 세미나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가 'SS혁신보고서' 저자 김만형 박사를 초청,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했다.

29일 오후 열린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에서 김만형 박사는 미주한인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 “성경적인 기초가 약하며 1.5세나 2세 사역자들을 균형 있는 건강한 목회자로 키우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5세와 2세 사역자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리를 제공해주는 1세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학교의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일학교교육이 잘 안되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많다 △공간 부족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 △신신된 교사, 준비된 교사가 없다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육을 맡은 담당교역자들의 철학부재를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교육 철학을 세울 것 △주일학교 예배를

점검해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할 것 △교회교육방법론 갱신 등을 제시했다.

김만형 박사는 “많은 사역자들이 현재 맡은 사역과 사역지에서 좀 더 오랫동안 사역하길 바란다. 적어도 한 부서에서 10년을 사역에 투자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6회 사랑의 찬양제에서 총현선교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선교와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제6회...남가주한인장로협 주최 12개 팀 참여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홍순원 장로)가 주최한 제6회 '선교와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가 남가주장로성가단, 미주평안교회남성중창단 등 1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23일 오후 6시에 개최됐다.

박광원 장로(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제1부 예배는 하기인 장로(전 회장)로 기도하고, 민중기 목사(전 남가주교협 회장)가 누가복음 10장 26-29절을 본문으로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우리들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2부는 이상렬 장로가 사회를 맡아 진행을 했는데 제1부에서 사회로 청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나성성결교회 찬양대 △세계비전교회 여성성가대 △미주평안교회화살남성중창단 △남가주한소망교회성가대 △할렐루야성가대 남성중창단 △미주여성성가대 △글로벌아한인합창단 △남가주장로성가단 △총현선교교회 찬양대 △Joyful 선교중창단 △USAMA색소폰오케스트라 △인랜드교회 찬양대 등 12교회 찬양대와 단체가 참여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OC교협주최로 열린 김만형 박사초청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에서 김만형 박사가 열린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나성열린문교회·평화교회 각각 폐쇄조치

26, 27일 각각 폐쇄조치, 주일 임시처소서 예배드려

미국의 경기하락과 무리한 교회 운영 및 ECCU와의 갈등 등으로 LA 한인 타운의 교회들이 폐쇄 조치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퇴거명령을 받았던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는 지난 26일 오전 세리프직원들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이 실행됐다. 이날 오전 도로변에 있는 나성열린문교회 출입문에 NO Stop 사인을 붙이고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여러 대의 경찰차, 엠블런스(911)를 대동한 법원 집행관 세리프직원들이 강제 퇴거명령을 집행했다.

달리나와 8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갈멜산기도원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앞으로 두 교회는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며 향후 이들 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한 ECCU와 연관이 된 교회 중 교회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쇄조치 될 교회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한인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박준호 기자)



미주여성성가대 21주년 기념 및 사랑의 음악회에서 한국 여성의 우아함을 엿볼수 있는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고 있다.

미주여성성가대 21주년기념 사랑의 음악회

미주여성성가대(지휘 오성애 권사, 반주 안성경) 장단 제21주년 기념 및 불우아동 무료 치료를 위한 캠페인인 헤브론교회 선교병원 돕기 보따리가 음악회가 지난 22일 오후 7시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옛 수정교회에서 개최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9월의 밤하늘에 울려 퍼져 수정교회 안에 참석한 500여 관람객들을 은혜의 광장으로 안내했다.

이은우 목사(베델한인교회 부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사랑의 음악회는 미주여성성가대 단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를 오픈인 송으로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알렐루야 남성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아메이징 그레이스'와 'You raise me up'을 바리톤으로 불러 웅장한 화음을 선보였고, 바리톤 권상욱 씨가 '금단의 노래'를 불렀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 게시판

남가주교협 제43차 정기총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민 목사)는 제43차 정기총회를 11월 5일(월) 오전 10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323)735-3111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설명회

한인연장자센터(소장 케서린문)는 한인연장자센터 2013년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설명회를 오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에서 갖는다.

▲문의: (213)739-7888

담임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임시당회장 임동하 목사)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하고(M.Div) 이민목회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학력증명서 사본, 추천서 2부(추천인이 직접 보냄), 설교 2편(CD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을 10월 30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www.arkmissionchurch.org

은혜실업인선교회 무료상담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이도양 장로)는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 및 경제 분야 전문인을 초청한 가운데 무료 개별 상담의 장을 마련한다. 일정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장소는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로비이다.

▲문의: (951)533-1197/이창태 집사, (213)713-2001/한상영 집사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뮤직웍샵

베데스다 대학교 음악과에서 Greg Mathieson(Keyboardist/크리스찬 뮤지션)교수와 함께 실용음악과 및 찬양사역과 뮤직웍샵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키보드연주, 밴드 앙상블, 뮤직컨셉에 관해 강의와 연주를 하게 된다. 10월 10일(수) 오후 1시 베데스다 대학 #302. 등록비 20불

▲문의: 714-683-1210



울림선교합창단 임원진이 올림픽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제 6회 정기연주회 갖는 울림선교합창단

경찰서관생도 프로그램 지원위해 밸류카드 발매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선교사를 돕고 있는 울림합창단(단장 강천수)이 제 6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1일(주) 오후 6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게 될 정기연주회를 위해 울림선교합창단의 루트팀(팀장 표순조 권사)과 파워팀(팀장 이혜경 권사), 드림팀(팀장 지수한 권사)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마무리 연습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금번 연주회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금은 올림픽 경찰서 '경찰서관후보생도(CADET)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울림선교합창단에서는 이번 경찰서관 후보생도를 돕기 위한 일

환으로 밸류카드(Value Card)를 발행, 판매하고 있다. 이 카드가 1매 20달러로 카드 협력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의 디스카운트를 받는 제도이며 가족, 친지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 사용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카드 협력후원업체는 강남회관, 소향, 신정, 알베네, 오대산, 용수산, 정해진, 토요미, 뉴욕제과, 푸레주르, 서울떡집, 기독교서적, 세종문고, 한나꽃집, 김희선영구화장, 라브리 스킨케어, SKD 샵, 헤어월 미용실, 크리스탈 스파, JJ정터 등이 다.

제 6회 정기연주회와 밸류카드에 관한 문의는 (213)663-5183으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3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3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2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 장 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사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913-4499 www.lafgc.com

▶ 등록비: \$20 (필수)
▶ 회 비: \$120이상 (성도1인당 1불씩)

제출서류

임우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2년 10월 24일(수) 오후 5시까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 의: 유두 박세현 목사 (323)404-3147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213)255-1725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
 -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16조)
 - 2) 수석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목회자 (제16조 2항)
 - 3) 부회장: 목회경력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15조)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서류
 -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교회주보 5) 발원기금(캐시어스체크)
 - * 후보자 본회 발원기금: ·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
 - 1) 교단추천인 12명 이상 될 경우 추천
 - ▶ 일 시: 2012년 10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남가주 교협 회의실
- 공천위원회 모임
 - ▶ 일 시: 2012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 ▶ 장 소: 남가주 교협 회의실
 - 1) 공천위원: 교협 회장단 추천 6명, 이사회 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 2)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 (1)교단장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2)정화번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회장: 변영민 목사 ● 수석부회장: 진유철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E-mail: churches9000@gmail.com www.theckc.org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2013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다 음

미국전 대우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인명)와 기독교 기관을 중심으로 발송 있도록 정례하게 수록한다. (각 지역별로 목회(교회), 기관, 기관장(인명)을 수록한다.)

의수주원 권교는 반드시 권교주의 나치명 후 해당 리스팀 날짜 기재한다.

의 권교는 권교를 발행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팀 한다.

이 리스팀 및 광고 접수: 지금 연락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8-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유종	크기	가격	
일용(포지)	3.5cm x 4.5cm	\$800.00	
정명엽	17cm x 24.5cm	표지 내면(2매, 3매)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전면리얼 권우 indk에 특색을 넣어들			
권면목책	15.5cm x 23.5cm	\$1,000.00	
권면 1/2	15.5cm x 5.6cm	\$800.00	
권면 1/4	15.5cm x 5.6cm	\$350.00	
권면 1/8	7.7cm x 11.7cm	\$250.00	
	15.5 x 2.6cm		
권면 1/16	7.7cm x 5.6cm	\$100.00	
권면 1/32	3.7cm x 7.5cm	\$200.00	

발행: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두 모습

정준모 예장합동 총회장 “총회 정상적 파회”

[미션라이프] 예장합동 정준모 총회장이 “총회 파회는 정상적이었으며, 처리 못한 안건들은 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운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칼빈주의 개혁보수신학의 진정성을 선포할 것”이라며 “교단발전 5개년 기획위원회를 발족해 교단 발전의 디딤돌 또한 놓고, 침체와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 고시문제나 목사 안수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총회 폐회에 관련해서는 “사회자에게는 파회 선언권이 있다”며 “12장 7조에 따라 파회를 선언했다”고 답했다. 총회 직전 불거진 노래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이야기는 담당하다”며 “등장하는 인물들 조사해보면 다 안다”고 답했다.

비대위 침묵시위... “총회장 불신임·총무 퇴임” 주장

지난 97회 총회의 갑작스런 폐회와 ‘가스총’ 사건 등을 이유로 정준모 총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황규철 총무 퇴임을 주장하는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서창수 목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노회장들은 예배 시작 30여분 전부터 ‘가부없는 파회선언은 무효’, ‘가스총 총무 즉각 해임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동 등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당초 식당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비대위 관계자들은 계획을 바꿔 예배당 밖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때문에 취임 감사예배는 후반부부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회언론회 ‘세습’ 설문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아버지로 부터 담임목사직을 승계 받아오 무방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최근 30~60대 현장 목회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하는 것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6%(30명)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담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같은 결과를 분석할 때 현장 목회자들의 감각이 외부 사람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세습 목회를 반대하는 이들이 목회 현장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물려주려다 교회공동체가 반대해 본인도 원로목사가 안 되고 자식의 후계 문제도 부결됐다. 교계는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후임 목회자 문제가 세습이라며 반대하는 이들은 교회법 적용과 교회공동체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는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목회자 80% “아버지 뒤이어 담임목회 무방” 84% “세습 대신 후임·후계자로 불러야”

고 정상적일 때)는 53%(62명)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1%(24명)에 그쳤다. ‘세습이란 용어 선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6%(18명)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장애가 없으며 오히려 전임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와 현실이 그러함에도 반대하는 이들과 안티 기독교인을 설득할 만한 조치가 교계에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척도만 주장하는 것은 옳은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일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서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할 일”이라며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처럼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원리를 따라야 할 것(롬 15:2)”이라고 조언했다.

충현교회 설립 김창인 원로목사 소천



1970·80년대 대형교회를 이끈 대표적 인물로 추앙받는 김창인(사진) 서울 충현교회 원로목사가 2일 새벽 노환으로 소천했다. 향년 95세.

충현교회(당시 동일교회)를 개척했다. 63년 예장 합동에 가입했으며, 70년 제55회 예장 합동 총회장에 당선됐다. 77년 북한선교회를 창립했으며,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물려주자’는 기치아래 80년 공사에 들어가 88년 화려한 고딕양식의 석조건물인 현재의 예배당을 준공했다.

각 교단 총회, 개혁노력 아쉬워 선거법개정 등 개혁안건 미진, 상정조차 못해

[CBS] 지난달 하순에 열린 각 교단 정기총회에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안 등 교회 개혁의지를 담은 안건들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교계 안팎의 여론을 반영해 임원 선거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기총회에서 다뤘다.

찬송가개정·주기도문안건 대개 부결

각 교단 가을 총회서 유보적 입장 보여

[CBS] 이번 가을 각 교단총회에서는 교인들의 일상 신앙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찬송가와 주기도문 관련 안건들은 대부분 부결되거나 유예되는 등 통과되지 못했다.

2006년 예장통합총회가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사용하기로 공식 결의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교단들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회언론회 ‘세습’ 설문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아버지로 부터 담임목사직을 승계 받아오 무방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최근 30~60대 현장 목회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하는 것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6%(30명)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목회자 80% “아버지 뒤이어 담임목회 무방” 84% “세습 대신 후임·후계자로 불러야”

고 정상적일 때)는 53%(62명)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1%(24명)에 그쳤다. ‘세습이란 용어 선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6%(18명)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교회언론회 ‘세습’ 설문

목회자 10명 중 8명은 아버지로 부터 담임목사직을 승계 받아오 무방하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최근 30~60대 현장 목회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하는 것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6%(30명)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목회자 80% “아버지 뒤이어 담임목회 무방” 84% “세습 대신 후임·후계자로 불러야”

고 정상적일 때)는 53%(62명)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1%(24명)에 그쳤다. ‘세습이란 용어 선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6%(18명)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에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el.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www.le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Tel. 213.487.5446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Toll Free 1-800-281-2123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공 디스크 저가판매! Tel. TOLL FREE: 1-866-817-4094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T. 516.354.8484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박람회. Tel. 800.347.7057

동남아인 가장 열정적 신앙 보유

퓨리서치센터, 2012년 지구촌 무슬림 다양성 설문조사

지구촌 무슬림 숫자는 무려 16억 명에 달한다. 이들은 알라 신을 믿으며, 선지자 무하메드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라마단과 자선을 기꺼이 실천하는 동일한 신앙 체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자 수가 많은 만큼, 지역에 따라 실제로 이슬람 신앙을 실천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퓨리서치 센터는 밝히고 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신

앙을 가졌다고 밝혔다(The World's Muslims: Unity and Diversity). 동 센터는 세계의 3만5천 명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와 예배의례 그리고 생활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앙의 다섯 기둥인 신앙고백, 기도, 자선, 금식, 메카순례를 가장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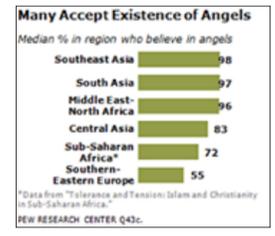
설문 응답자 중 매년 자선을 한다고 대답한 무슬림의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98%,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93%로, 이들 3나라의 비율이 설문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이슬람은 소유한 부의 2.5% 정도를 자선행위에 쓰도록 하는 관습을 갖고 있다. 라마단 기간 동안의 금식을 한

다고 응답한 무슬림의 비율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99%이며, 태국은 100%로 조사됐다. 또한 매주 한번 이상 이슬람 사원

에 간다고 응답한 무슬림의 비율은 인도네시아가 72%로 가장 높았고, 말레이시아가 57%, 이집트 61%, 터키가 44%를 기록했다.



매일 기도를 한다고 대답한 이의 무슬림의 비율은 동남아시아가 99%로 가장 높은 반면, 중앙아시아의 51.5%로 가장 낮았다. 반면 메카순례는 지리적으로 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비율이 낮았다



율은 인도네시아가 99%, 말레이시아가 98%, 태국 91%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주술에 대한 믿음도 동남아시아 무슬림들이 가장 높았지만 부적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신앙심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 조사

로 밝혔다. 동 센터의 2011년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1천930만 명이며 이중 61%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고,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4개가 아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무슬림인구 2억5천611만), 파키스탄(1억7천809만), 인도(1억7천722만) 방글라데시(1억4천890만) 순이다. 반면 태국의 무슬림 공동체는 작은 규모인데, 2010년 개종된 Operation World(세계기도정보)는 태국 전체 인구 6천813만 명(2010년) 중 무슬림 비율은 7.9%로 약 538만 명이라고 기록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다섯 기둥-신앙고백, 기도, 자선, 금식, 메카순례 가장 열심

데, 동남아시아는 6%에 불과한 반면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17%를 보였다. 천사의 존재를 믿는 무슬림의 비

보고서는 설문을 실시한 모든 나라에서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악이나 불행은 없애기 위해 부적과 같은 신비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슬람 세계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네트워크 대표)

미국의 작은 영화가 무슬림세계를 분노의 폭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연상한다. 템페스트(폭풍, 소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태풍이 아니라 마법에 의한 인간적 작품이다. 이번 템페스트도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대로 단순한 mischief(장난)가 엄청난 misfortunes(불행)을 초래했다. 미국영화를 단순한 장난기의 작품으로 비유했다. 태풍은 좀 가라앉은 것 같으나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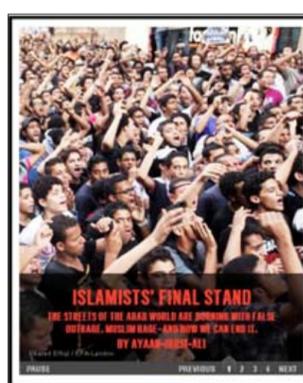
이슬람 세계와 서구의 문명충돌이 종교충돌로 발전,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에서 가장 격렬한 데모가 지금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국제지만(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마다라사라는 1만3-5천의 이슬람학교는 코란과 같은 동시에 가르치며, 탈레반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사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종교가 도리어 증오를 부채질한다. 리비아 미국대사는 그야말로 리비아를 사랑한 자였다고 리비아 국민들도 애도한다고 한다.

세계 도처에서 과격주의로 인한 분쟁, 갈등, 살인,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종교적 과격주의, 과격 민족주의, 과격 인종주의 등등, 존 스타트는 기독교는 중용의 종교라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과격 목사의 자극적 행동이 너무 큰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무슬림세계의 데모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라

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영화는 하나의 필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슬림 내부에서도 폭력은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번 데모는 도리어 아랍의 봄을 후퇴시켰다고 말한다. 특히 이집트의 모르시 대통령이 제1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데모의 다른 원인은 아랍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 불안, 형제단의 집권이 도리어 데모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집트 모르시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격렬한 분노의 데모 가운데서 합리적 무슬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폭력은 안된다고. 이들이 바로 이슬람 세계의 희망이라고 한 서방 언론인은 격찬했다. 동시에 데모 가담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서방에서도 반이슬람 분노를 촉발, 무슬림들을 증오하는 강도가 높아졌다고 지난주 영국 BBC가 보도했다. 셰익스피어작품의 태풍은 인간의 증오가 일으킨 분노의 폭풍이듯이, 이번 '템페스트'도 종교적 분노와 증오의 산물이다. 이번 뉴스는 소말리아에서 네델란드에 이민 온 한 무슬림여성인 이슬람을 버리고 정치가로 변신하고 또 동료의원 반고흐와 함께 이슬람의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를 만들었다가 폭력의 위협에 시달려 미국으로 피신했다.

히르시알리의 글(이 글에 대한



지난 9월17일자 뉴스위크지 표지

무슬림들의 반박댓글은 섬짓하다.

최근 이슬람 지역의 데모가 일어난 것은 종교롭게도 살만 루시디의 저서 조셉 안톤의 비방록이 출시된 것과 때를 같이한다. 이번 사건은 23년 전 사건과 거의 같다(1989년 이란의 호메이니가 살만 루시디에게 파드와를 선언한 것 의미함). 이들은 민주정부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 (중략)

그러면 미국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집트 정부는 미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영화 제작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미국이 그것을 수용하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특히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려고 몸부림치는 무슬림들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무슬림 세계에서는 코란이나 예언자가 더 중요하지 사람의 생명은 그리 중하지 않게 여긴다. 무슬림들은 개인의 정치적 활동, 성별, 종교, 직업에는 관심이 없다. 히르시알리가 말한 것은 거의 적

중하고 있다. 최근 외신들은 중동은 도리어 후퇴하고 정치, 불안, 경제실패, 다만 승리한 자들은 무슬림 형제단인데 벌써 국민들이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주: 아안히르시알리는 소

말리아 출생으로 1992년 종대결혼을 거부 네델란드로 이민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네델란드 국회의원 역임, 현재 하버드대학 케네디 외교연구소 연구원이다. 그녀의 저서인 '불신자'는 2007년 뉴욕타임지 베스트셀러가 됨)

문명충돌의 양상

아랍의 분노는 반대로 서방의 분노도 촉발했다.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아랍의 분노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방에서는 예수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신학자의 주장에도 조용한데, 그 정도의 만화나 영화 가지고 크게 흥분하느냐는 식이다.

오바마, 힐러리, 주 이집트 미국대사가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미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신랄하게 오바마, 힐러리, 대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오바마, 힐러리, 대사는 영화를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외부세계

에 있다." 롬니는 미국의 가치관을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오바마를 공격한다.

한 댓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Terroist Spring" that Obama and Democrats supported is going great." 쉽게 번역하면 "오바마와 민주당이 지지한 테러리스트의 봄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는 취임직후 카이로대학에서 자신은 케냐 무슬림 배경이며 미국 건국후 미국을 제일 먼저 승인한 나라는 모로코라고 하면서 아랍과의 새로운 시작을 호소했다. 그러나 먹혀들지 않는다.

지난 9 21일 영국 BBC는 자막에 "공격당하는 서방의 무슬림"이라는 글이 뜨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을 하였다. 물론 이슬람교의 지식인들은 무함마드를 비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크리스티븐 미국대사의 사망시 사진

그러면 리비아대사 살해, 아랍의 분노는 우발적인가? 아니면 계획적인가? 사건이후 서방언론들은 일제히 아랍의 분노는 아주 조직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하는 기사들로 가득 찼다. 결론은 결코 우연이 아닌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많은 미스터리 중에 대사를 살해하는 장소의 예도대들은 이미 중무장을 한 것을 예도 든다.

알카에다가 아닌 다른 이슬람 과격세력이 개입했다고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다 계획된 각본이라는 것이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래서 최근 오바마는 UN연설에서 이슬람세계의 폭력을 규탄했다.

화해는 불가능한가?

이번 데모로 가장 고통당하는 자들은 파키스탄의 신자들이다. 한 신자는 익명으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종교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팅톤 책의 마지막 글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대, 문명은 여러 방면에서 야만성(barbarism)에 그 지위를 양보하고 있다. 그래서 유례없는 국제적 암흑기가 찾아와 인류에도 점차 약해질 것이다."

영국의 선교학자 안드류 커크는 두 문명의 화해를 제창한다.

"무슬림 역시 자신들이 다원화된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도 높고 이를 현실에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지만, 타 종교인들 역시 자신들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서로 다른 종교인들끼리 충돌한다면 논쟁은 끝이 없을뿐더러 때로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무슬림들은 타 종교에 대해 호전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화목하게 살기 힘들 법이다.

(14면으로 계속)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필자: 임영환
504면 / 18,000원 (1~13권)
653면 / 25,000원 (14~23권)
신구개정판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와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풀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뿐만 아니라 유월절, 이스라엘의 기루, 농사적상향, 성전건축사 등의 식을까지도 알기 쉬운 토대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일 목사

- 부산신대목회원
- 에쿠살림대학성경지도역사학과교수
- 현세직대학Ph.D 과정
- 현세직대학교회학연구원
- 현한국어사어학연구소연구위원
- 현미스라엘임업아카데미대표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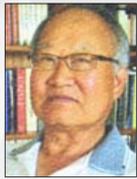
서울국제도서전
6. 20. - 24.
COEX A/B홀
www.sibf.or.kr

http://www.israele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 입국에 대한 특별강의!

● 한국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
● 홈페이지 www.gurman.co.kr
● 주소 서울특별시구미로동 184-3 ● 전화 02-947-1104

기독교문학소설

여리고로 가는 길 (15)



정중해 박사 (문학인)

“안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지요?” “진태는 먼저 호기심이 섞인 질문을 던졌다.

“예수를 믿고 나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화로 들려주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중학교 시절에는 저도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대학 때는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 절간의 스님을 찾아간 적도 있고요. 교회에서 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럼 이야기 한 번 들어 봅시다.” “어느 행인이 강도들을 만나 옷까지 빼기고 반쯤 죽도록 얻어맞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그 이야기죠?” “맞아요.” 진태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종교인들은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보고 겁이 나서 길 한쪽으로 피해 갔지만, 마침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늘 팔시를 받던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에 다 약까지 발라주고, 자기 당나귀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는 그 이야기죠? 목사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이구! 어떻게 그렇게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 목사는 진태가 이미 성경 이야기를 그 정도로 잘 알고 있으면 더 긴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화제부터 시작했다.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킹 목사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어디마이 어(admire) 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강도들에게 얻어맞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일만 하다가 일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여리고로 가는 길을 고치고 싶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균등하게) 교육, 직장, 보안, 건강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태는 호기심을 돋우어 안 목사를 쳐다보았다. 안 목사는 자기 앞 식탁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서 모로 세웠다가 가로 눕혔다가 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가 언제까지 늘 그렇게 강도 만나 얻어터진 사람의 상처만 싸매어 주어야 하나? 그런 짓은 적십자사도 할 수 있고, 병원의 의사들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보다도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런 강도들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나도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런 일이 무엇이던가요?”

“우선 어떤 직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부터 생각해 보았지요. 이를테면, 강도짓을 단속하는 치안관이나 그런 강도짓이 필요 없는 풍요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가가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다른 천직도 생각해 보았어요. 즉, 그런 흉악범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어릴 적부터 착한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죄스런 인간성을 변화시켜 신앙인으로 바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목사가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지요.”

“그럼 하필 목사의 길을 택한 이유는요?”

“제가 목사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 그런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저는 강도들을 퇴치하려고 경찰관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지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 사회를 빨리 고쳐 놓을 수 있는 정치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정치가가 되면 야가 말한 킹 목사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일,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 때는요, 정치가가 되어 보겠다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니까 다소 좀도둑은 줄지만, 그 대신 경제가 나아질수록 범죄는 더 지능화 되고 더 다양화 되어가는 현실을 보고 정치할 생각을 버렸습니다.”

안 목사는 식탁 앞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다시 본래 자리에 탁하고 내려놓고 다음에 할 말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요. 사회악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죄짓는 성질, 시인풀 내이츄어(sinful nature)가 있으니까요. 저는 킹 목사는 아주 존경합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하고 싶었던 대로 여리고의 길을 아무리 고쳐도 절대로 강도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인풀(sinful)한 인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요.”

조금 목소리가 격양된 안 목사는 목이 걸걸하자 몇 번 기침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런 사회악의 더 근원적인 원인을 다루고, 그런 사회악 때문에 멍든 사람들의 상처를 더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 저는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진태는 안 목사가 이런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는 고백에 수긍이 간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태가 조금도 지루한 기색 없이 가만히 경청하고 있으니까, 안 목사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강론을 시작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선교 편

파푸아뉴기니로 귀일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지난 주 저희는 참 놀랍고 반가운 한 줄의 이메일을 받았습니 다. Dear Dad and Mom, When r u coming home to Papua New Guinea?(사랑하는 아빠, 엄마- 언제 파푸아뉴기니 집으로 돌아오시 나요?)

파푸아뉴기니 가바디 부족 마을의 어린이 학교 선생인 빌리 아로 형제로부터 한 줄의 전자메일이 온 것입니다! 전기도 없는 부족 마을에서 어떻게 이 형제가 저희에게 전자메일을 보낼 수 있었을 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수도인 포트모르스비에 나와서 친척들의 힘을 빌려서 보냈겠지요? 답을 보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한국에 와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사계절을 보내며 지내노라니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절의 변화만은 아니겠지요? 3년 전 한국에 들어와 어떻게 분국사역을 해야 할까 아니 고국인 한국생활에도 낯설어 힘들어 했었는데 벌써 3년이 훌쩍 지나 저희가 다시 선교지로 귀일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 10월10일 한국을 출발하여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주신 응답으로 저희 후임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저희는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었고, 지난 6월, 저희는 공식적으로 분부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용하던 저희 소품을 정리하노라니 지난 3년 동안 한국

생활과 새로운 사역에 적응해나 가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이 그저 감사 할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분국 사역 동안에도 변함없이 기도해주 시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수많은 손길들이 떠올라 가슴이 벅 차올랐습니다. 분주하다는 핑계로 자주 소식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 소식을 드립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GBT 14개의 지부를 돌보는 일,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는 일, 또한 신학교들, 기타 교회들에서 진행되는 선교프로 그램에 참여하여 격려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는 일, 또는 다른 선교단체의 리더들과 함께 토론을 하며 선교정책을 돌아보며 연구하는 일 도 저희들이 해온 사역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만나 교제 할 수 있었던 것도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하여 훈련 시키며 선교사의 길을 가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지난 몇 년간 저희들이 누릴 수 있었던 복된 시간 이었습니다. 지난 4월28일에는 그 동안 기도하며 조금씩 준비해왔던 전국 동역회 총회를 남서요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부에서 아니면 개인으로 성경번역 선교를 위해 힘써 오신 동역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성경번역선교를 위해 동역하기로 다짐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선교에 동참하여 선교사의 삶 을 사는 귀한 모험으로 확정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조금씩 구체적인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그 동안 떨어져있던 딸아이들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하와이 코나에서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헤란이 가족은 사위 데릭 목사가 마침 몽골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서 온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작은 딸 하나 가족은 사위(양명철)가 뉴저지에서 신학을 마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태국과 동남아시아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모두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은 비록 한 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4년 만에 불어난 가족이 모여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 다. 저희는 4명의 손주를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행복한 시간과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고국을 뒤로 하고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고 합니다. 마치 복귀하는 귀대 장병처럼, 몸을 추스르며 호흡을 새롭게 하며 나갈 곳을 바라봅니다.

처음 선교사로 김포공항을 출발했을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마음에는 아직도 30대의 열정이 있으나 몸은 이미 60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없진 않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귀한 동역에 감사하며 또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귀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믿습니다.

선교의 사랑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도와 함께,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 올림.

▲연락처: lovewaima@yahoo.co.kr



분부 사역자들과 함께 했던 귀한 시간들은 분부 사역의 귀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멀리서 지냈던 고국의 품에 안겨서

(13면에서 계속) 이슬람 세계뉴스 그러나 성숙한 종교라면 자신에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타인 역시 자신들과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여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한 선지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아야 한다. 선지자의 사명은 시대의 징표를 읽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크며 그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의 헌신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선지자의 임무가 사회 및 정치적 측면에만 국한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명은 사회에서 무시 받는 약자 및 외부인들을 위한 정책, 프로

그램, 그들을 위한 형평성을 변호하는 것이라 한다. 물론 그 주장은 옳고 선하지만, 성경의 선지자는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사회를 심장부까지 깊이 이해하여 그 정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는 것이다”(Andrew Kirk, The Conflicts in Civilization의 결론부분).

그럼, 그들을 위한 형평성을 변호하는 것이라 한다. 물론 그 주장은 옳고 선하지만, 성경의 선지자는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사회를 심장부까지 깊이 이해하여 그 정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는 것이다”(Andrew Kirk, The Conflicts in Civilization의 결론부분).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다니엘 전자성경 만나 전자성경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회원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화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2013년 달력 E7 미가엘 반주기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리성주사 에어드수정기 E7H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하면 빛나는 장광사 불타오른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주사 최저가격 보장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HALLELUJAH BOOKS, Inc. 주문처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o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가정사역 칼럼



행복도 선택이다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1. 행복의 원천인 마음 발을 가꾸라

진정한 행복은 생각과 마음에서 솟아나온다. 잠언에서도 마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길 때 가능해진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발에 비유되곤 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 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덮여질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돌밭이나 길가 발은 흙이 별로 없거나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고 굳어진다고 했다. 결국 좋은 마음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려나 걱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한다.

혹여 끊임없는 염려나 근심 속에 쌓인 상태로 살고 있다면, 잠시나마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

강조되고, 감성이 민감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한 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색깔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감정은 네 가지로 뚜렷하게 분류된다.

예로부터 희로애락(喜怒哀樂)이라 하여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말해 왔고, 근래에는 두려움과 놀람 등에 대한 감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배우자에게나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히 고백해 보라. 그때 우리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의지란 내 마음에 뜻하는 바, 혹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자세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힘든 상황에 빠지거나 갈등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인생의 행복을 보다 쉽게 누

마음이 생명의 근원, 행복은 생각과 마음에서와 바른 결정내리기 위해 보혜사 성령 도움 받도록

속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삶에서 지적인 면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넘쳐나는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 쓸데없는 정보를 따치는 대로 마음 발에 뿌리려 한다면, 우리 정신과 마음이 혼란에 빠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정크 푸드를 마구 먹어 우리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듯이 말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지만, 잘못된 정보나 오해는 문재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오늘날은 감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감성이

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매우 유익하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인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문자적으로는 ‘돕는 자’, 혹은 ‘바른 옆에서 부름 받은 자’란 의미인데, 그런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발적인 변호사인 셈이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거나 살아보지 않은 앞날들을 맞이할 때, 끊임 없이 다가오는 불안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갈 길을 보여 주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동성한 삶의 주인 (막8:1-10)

본문은 소위 칠병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이적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방에서 베풀어졌던 오병어어의 이적과 유사하게 주님은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에서 각각 한 번씩 두 번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아온 자들을 결코 굶주린 상태로 돌려보내시지 않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단지 몇 개의 보리떡과 물고기로 말입니다. 당시에 선생이라는 자들이 많았고 또 오늘날

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인류의 구세주로 자칭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러한 이적을 베푼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가진 것을 갈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 피폐한 삶을 살게 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화 하늘로서 오는 표적 (막8:11-21)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일이나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일이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살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표적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의 표적을 요구하며 표적만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 완전한 치유 (막8:22-26)

25절 “저가 주목하여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 여기서 ‘주목하여보다’라는 단어의 뜻은 캄캄하게 보이던 만물이 완전히 밝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의 안수를 통해 그 소경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됐을 때 치유의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안수하심으로써 그가 만물을 분명하게 보도록 완전하게 치유해주셨습니다. 이

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시되 완전히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병어리를 고쳐주시되 그의 말이 분명하도록 고쳐주셨으며(막7:35),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되 배불리 먹이셨습니다(막8:8).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비록 현재의 형편이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8:27-30)

2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주님께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제자들의 평가를 듣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나이다”라고 올바르게 고백을 했을 때 기뻐하심은 물론 그러한 신앙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언

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말할 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진리를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병을 치료하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금 십자가를 지고 (막8:31-9:1)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각양의 고통입니다. 고통은 예수님을 옳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느끼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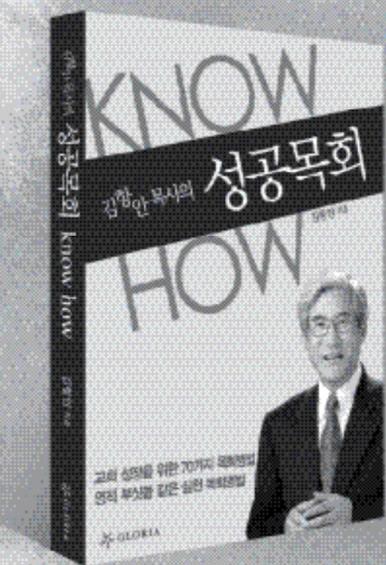
한다면 그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옳바로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믿으므로 오는 고통을 각오하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인식하고 인내로 감내하며 주님을 좇으시기를 바랍니다.

토 변화산의 교훈 (막9:2-13)

본문은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왜 높은 산에서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어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욕심과 세상의 허영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지내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듣고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주님의 뒤를 좇다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고전10:13).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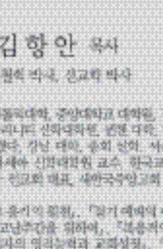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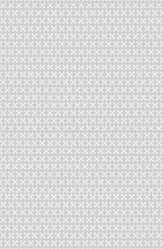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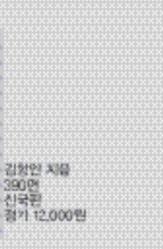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영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본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핵심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머시어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인식하는 ‘절대체’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요청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목사
철학박사, 권교학박사

목회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크리스티안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등에서 수석연구원, 강사, 대학원, 동역자, 목회 신학, 서울 신학원에 장시간 강사, 이석재 신학연구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영성회복’, ‘장기예언의 이해와 실천’, ‘영성적인 고난과 회복을 위하여’, ‘영성적인 삶과 교회의 성장’, ‘목회자의 영성회복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목회자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목회자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등이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 영성회복’, ‘장기예언의 이해와 실천’, ‘영성적인 고난과 회복을 위하여’, ‘영성적인 삶과 교회의 성장’, ‘목회자의 영성회복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목회자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등이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 영성회복’, ‘장기예언의 이해와 실천’, ‘영성적인 고난과 회복을 위하여’, ‘영성적인 삶과 교회의 성장’, ‘목회자의 영성회복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목회자의 영성회복을 위하여’ 등이 있다.

변화된 크리스천,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널드 목사의 변화된 크리스천의 12가지 특징 소개

사람들의 변화가 교회공동체의 목적이려면 교회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병대 군인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면,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고든 맥도널드 목사는 다음과 같이 12가지 특징을 소개한다(How to Spot a Transformed Christian: 12 outward signs of the inner reality).



1. 예수에게 깊이 헌신한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에게 '헌신'한다는 말이 더 좋다. 아무래도 '사랑'이란 말에는 감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좇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들의 관계에서 감상적인 사랑을 찾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헌신은 더 계획적이고 심지어 계산된 것이다.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본받겠다는 뜻을 꾸준히 새롭게 다짐한다.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리사도인도 도덕이 붕괴된 세상에서 제 역할을 '다하라'고 했다.

4. 예배하고 끊임없이 회개한다.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는 알맞은 과정의 리듬이 있다. 즉 예배다. 변화하는 신자는 예배를 통해 영원의 관점을 배우고, 내면을 깨끗이 씻고, 인생의 기쁨과 소망의 불꽃을 다시금 지핀다는 걸 알고 있다. 이사처럼 그 역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상한 심령을 마주한다.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를

예수님께 헌신하며 성경적 세계관 추구 예배와 회개하며 예수 성품 닦기에 노력

2. 성경적 세계관을 추구한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과 명령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는 듯하다. 바쁜 생활, 기술 발달, 넘쳐나는 온갖 역분, 주일학교의 붕괴 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는 성경 지식을 설교자, 작가, 강사들에게서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은 좋아하는 설교자의 독백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편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발뭇을 밝히고 갈 길을 비추어야 한다.

회개한다.

5. 건강하고 상호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는 친구들에게 충실하고, (기혼자라면) 배우자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며, (부모라면) 인내로 자녀를 양육한다.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망설임 없이 용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돕는다. 그는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기뻐한다.

6. 믿음을 모르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알고 있다.
그의 생활방식과 믿음은 세상의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별난 행동'을 인정한다. 생기와 안정과 활력이 그로부터 나오니까. 믿음의 사람은 멸시를 받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기생충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받을 때가 더 많다.

7. 자신의 '소명'과 고유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즉 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

해 사용해야 함을 알고 있다.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 그는 그것을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8. 자비롭고 관대하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바나바다. 그는 처음부터 관대함의 모범으로 등장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소의 사울을 예루살렘 신자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인다. 그는 갓 태어난 안디옥 교회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한다. 바나바는 첫 전도 여행에서 사울을 지도하지만 바울이 성숙해져자 지도력을 넘긴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필요했던 마가 요한을 두둔했다. 바나바다운 행동이다.

9.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고난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야고보의 말이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울의 말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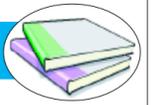
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10.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한다.
시간을 정해 '전도'하는 사람과 일상 모든 사건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다르다. 물론 둘 다 옳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새로운 생활방식을 자연스럽게 전할 기회를 찾을 뿐 아니라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한다.

11. 감사가 넘치고 명량하다.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을 받을 자격이라도 있는 듯이 본능적으로 받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람은 온종일 감사할 일을 찾는다. 그는 감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칭찬한다. 그는 모든 것이 감사로 완성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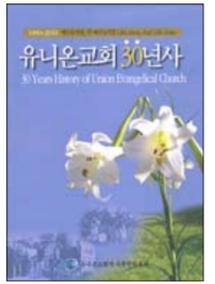
12. 화해를 위해 일한다.
성숙한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 인종, 경제, 성, 이념이 일으킨 전쟁, 폭력, 싸움, 분열을 미워한다.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는다.

새책소개



"유니온교회 30년사"

유니온교회(담임 문병용 목사)가 설립 32주년을 맞아 '유니온교회 30년사'를 출간했다.



2년 여간 준비해 편집 출판된 본서는 온교회 가족들이 사진, 자료 등을 제공했으며 30년간 있었던 30대 사건을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초안을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 영상물을 성도들이 본 후에 다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금은 유니온교회를 떠나고 없는 옛 성도들도 이 역사 편찬에 참여시키는 등 온 성도들이 함께 제작하는 역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문병용 담임목사는 "유니온교회 30년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유니온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게 하고 유니온교회 장래를 이룰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유산을 전달함을 편집과 출판의 목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하며 "대개 30년사 등 교회의 역사를 기리는 출판물은 사진위주로 되어있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유니온교회 30년사는 이러한 아쉬움을 최소화 하기위해 사진자료는 3분의1 정도로 배제

교회 발자취 담아 다음세대에 신앙유산 전달

했고 나머지는 그동안 일어났던 교회의 발자취를 담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본 교회 원로인 이정근 목사는 "유니온교회 30년사는 마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연대별로 나눠져 있다. 이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엮어 나간 것"이라 설명했다.
총 481쪽으로 구성된 본서 시작부분 6페이지 정도는 1980년-2010년까지의 히스토리 화보로 장식하고 제 1부-전체로 보는 유니온교회의 기초, 제 2부-'사건으로 보는 유니온교회 30년사', 제 3부-'글로 읽는 유니온교회 30년사', 제 4부-'30년사를 마치며'로 구성했다.
본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 읽는 유니온교회 30년사'에는 매 년도마다 기억할 만한 행사들을 월별로 게재했고 사무총회 회원명부, 직원명부, 새가족 명부 등을 상세하게 수록해 유니온교회에 몸담았던 모든 성도들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한편 유니온교회는 설립 32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출판 감사예배도 드렸다.
▲홈페이지
www.unionch.org

<이성자 기자>

Joy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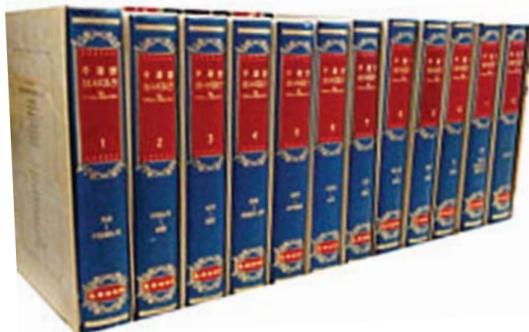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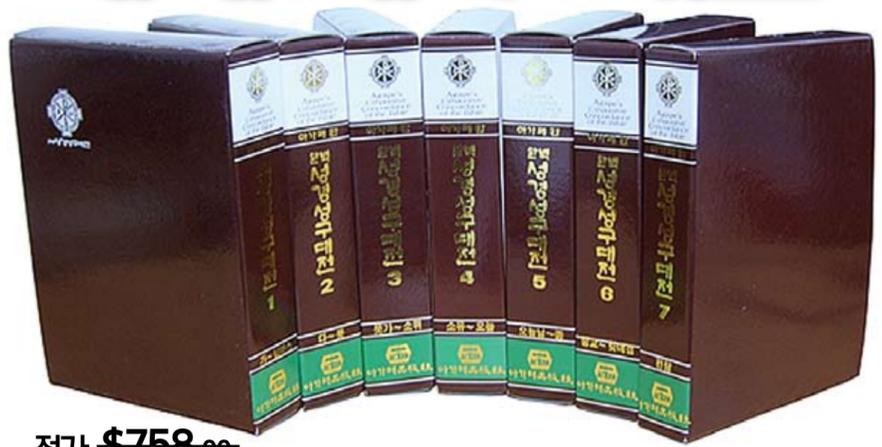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이끼예 원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정가 \$758.00

save 69%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남하스
2권:다~못
3권:롯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현대
7권: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